



사단법인 **인간개발연구원**

좋은사람 좋은세상

Better People Better World

2012. **11+12**

통권 제114호(비매품) 등록번호 서울 마 03200 발행일 2012년 11월 5일
발행인 장만기 편집 정용달 TEL 02-2203-3500(대) FAX 02-2203-1974
주소 135-280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66-4 동성빌딩 202호(www.khdi.or.kr)
디자인 한나로에드컴(www.hanaroad.com) 인쇄 (주)광진문화

CoverStory 장충식 단국대 명예총장

평생을 대학과 함께 한 '살아있는 대학 역사'

**대학 발전 위해서는
정부와 대학 소통이 우선**

머리글 박석무 다산연구소 이사장

11·12월 프로그램

Issue & Seminar

-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
- 김진명 작가

Special Focus 문학작품 따라 거니는 섬진강 나들이
회원칼럼 정문호 동국산업(주) 부회장

Hot & Issue

- 2012 소통아카데미 4*5기
- 영업마케팅 능력향상 과정

회원 & 연구원 소식

KHDI 회원가입안내

아카데미뉴스

2013 KHDI 교육프로그램

정보비타민

명사초청특강 김효준 한국트리즈컨설팅 대표

발행인편지

이인식칼럼





Je T'aime Proposal Promotion

피에르 가니에르 서울에서 아름다운 만찬과 함께 사랑하는 사람에게 로맨틱한 프로포즈를 선물하세요



- 대 상** 2013년 1 ~ 3월 예약 고객 (하객 250명 이상)
- 특 전** 피에르 가니에르 서울 로맨틱 디너
테이블 플라워 & 캔들 데코 및 꽃다발
프로포즈 당일 예비신부 리무진 픽업 서비스

지인(知人)과 안민(安民)



세상에 어려운 일은 뭐니 뭐니 해도 정치이다. 선거철은 바로 정치의 계절인데, 이런 때가 오면 모두가 정치하겠다고 출마하여 선거전에 뛰어들다. 총선이야 끝났지만 연말에 대선이 남아있어 금년 한해는 역시 정치의 해임이 분명하다.

중국 경전(經傳) 중에서도 <서경(書經)>은 바로 요·순정치를 실현하려는 정치철학이 담긴 경서이지만, <대학(大學)>은 통치의 요체를 설명한 경전이다. 그래서 다산은 <대학공의(大學公議)>라는 책에서 <서경>의 <고요모(皋陶謨)> 편은 <대학>이라는 책의 연원(淵源)이어서 수많은 성인(聖人)들이 서로 전해준 통치철학의 근본 취지가 <고요모>에서 시작하여 <대학>이라는 책에서 결론이 맺어진다고 설파했다.

그러면서 다산은 <서경>과 <대학>을 함께 거론하면서 통치철학과 정치의 근본을 명확하게 풀어냈다.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에게 큰 정치는 두 가지이니, 하나는 용인(用人)이요, 둘은 이재(理財)이다”라고 <대학>의 요체를 말하고, 그 근원을 <고요모>의 지인(知人)과 안민(安民)에 연결된다고 설명했다(대학공의).

남을 알아보는 ‘지인’을 통해 인재를 등용할 수 있고, 백성을 편안하게 살게 해주는 경제정책인 ‘안민’은 바로 이재를 통해서만 가능해진다는 주장이었다. 의식(衣食)이 풍족해야만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쯤이야 너무나 당연한 일, 그래서 출마자들은 모두 경제를 살리니, 경제민주화를 이룩하겠다고 떠들고 있다. 그러나 정작 그보다 더 중요하고 더 먼저 해야 할 용인의 정책에는 왜 명확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일까.

<대학>은 말한다. “통치자는 백성들의 부모이다. 백성들이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백성들이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해야만 백성들의 부모라 할 수 있다”라고 말하여 사람 알아보는 능력이 어렵지 않음도 설명한다.

일반 국민들이 존경하고 따르며 좋아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어진 사람이라는 것이다. 그런 어진 이를 등용하여 통치하도록 하는 것이 ‘입현(立賢)’이고 ‘거현(擧賢)’이라는 것이다. 정치의 계절이면 의례히 그렇듯 입후보자 앞에 줄서는 폴리페서나 철세 정치인들, 그런 누구를 우리 국민들이 존경하고 따르며 좋아하겠는가.

대통령 후보로 세 사람이 거론되는데, 후보 시절부터 제발 어진 사람들을 곁에 두고 선거를 치러야 할 것이다. 선거를 함께 치른 사람은 언제나 후보의 최측근이 되고, 당선자에게도 최측근이 되어 그들이 나라의 통치를 담당하게 되기 때문이다. 뇌물죄로 처벌된 퇴물정치인들, 학문연구나 강의 활동은 제대로 하지 않고 줄서기에만 도가 튼 폴리페서들만 후보들 주변에 득실거리고 있으니 통치의 요체라는 용인(用人)의 문제는 어디로 가버린 것인가.

역사이래, 어진 이를 등용하지 않고 성공한 정치는 이 세상에 없었다. 물려드는 정치꾼이나 썩은 교수들은 모두 내치고, 제발 3고, 4고초려를 해서라도 어진 이들과 함께 선거를 치르고, 당선 뒤에도 그들과 함께 국민들이 좋아하는 정치를 해야 하는 것 아닐까. 그래야 ‘지인’과 ‘안민’이 맞아 떨어지게 될 것이다. **박석무**



● 박석무 이사장

1942년생으로 전남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을 졸업했다. 제13, 14대 국회 의원을 지냈으며, 한국학술진흥재단 이사장, 단국대 이사장, 5·18기념재단 이사장, 한국고전번역원 원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다산연구소 이사장으로 재직하며, 고산서원 원장, 성균관대·단국대 석좌교수로 재임 중이다. <다산 정약용 유배지에서 만나다>, <역사의 땅 사상의 고향을 가대(조선의 의인들)>, <다산기행> 등 다수의 저서가 있다.

〈한반도미래재단 협력세미나〉

대북한 관광·레저 투자 배경과 대전환기의 한국 경제 전망

제1762회 11월 1일(목) 롯데호텔(소공동) 3층 사파이어볼룸

금강산 관광은 지난 반세기 동안 이어온 남북 갈등과 대결 국면을 교류와 화해의 무드로 전환시킨 역사적인 사건이다. 1998년 11월 동해항을 출발해 북한 장전항으로 향했던 금강산 관광선은 남북분단사의 새 이정표로 기록될 만큼 그 의미가 크다.

그러나 지난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지 벌써 4년을 훌쩍 넘겼다. 금강산 관광은 남북관계의 현주소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사안인 만큼 앞으로 결과가 주목된다. 이런 가운데 114년의 역사를 지닌 독일 캠프스키 호텔그룹이 지난해 금강산과 원산휴양지 개발을 위해 원산에 공항과 호텔을 건설하기 시작했다. 캠프스키 호텔그룹은 원산공항을 현대화하고 호텔을 지어 일대를 휴양지로 개발하고 원산과 금강산을 잇는 도로를 보완해 외국 관광객들이 직항기 편으로 원산공항을 이용해 금강산 관광에 나설 수 있도록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캠프스키 호텔그룹은 풍부한 호텔 및 리조트 운영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현재 세계 39개국 128개 호텔 및 리조트를 운영, 건설하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역사가 긴 탑클래스 호텔그룹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연구회는 통일 한국, 동북아 번영, 국제 평화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 한반도미래재단과 함께 하는 협력세미나로써 2011년부터 대북한 관광·레저 투자를 시작해 북한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독일 캠프스키 호텔그룹의 레토 위트워 회장을 초빙하여 대북한 관광사업 투자 배경과 남북관계에 따른 한국 경제의 전망에 대한 외국 기업의 견해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는다.

12월 대선과 당선자의 새로운 과제

제1763회 11월 8일(목) 롯데호텔(소공동) 2층 에메랄드룸

12월 19일은 제18대 대통령 선거일이다. 대선을 앞두고 각 후보들은 언제나 자신의 힘으로 낚은 관행을 바꾸겠다고 약속하며 자신이야말로 이 시대에 적합한 지도자라고 역설한다. 물론 그 약속이 지켜지는 경우는 흔치 않다.

안정의 박근혜 후보와 통합의 문재인 후보, 그리고 변화의 안철수 후보가 경합을 벌이는 3자 구도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그렇다면 이들 세 후보가 당선되었을 때 가져야 할 의식과 풀어가야 할 과제는 무엇일까?

함성득 고려대 교수는 국내 최초로 '대통령학'이라는 학문을 들여온 인물로 현재 한국대통령학회 회장을 맡고 있다. 함 교수는 한국 대통령들의 국정 운영의 축이 시기별로 변해왔다고 설명하며, 1950년대에는 대통령과 군이, 1960년부터 1990년까지는 대통령과 관료가 중심이었다고 전제한다. 또 2000년부터는 대통령과 국회가 국정 운영의 핵심축으로 부상하면서 국회와의 합의를 원활하게 이끌어낼 수 있는 입법적 리더십이 중요해졌다고 진단한다. 이에 따라 함 교수는 대통령의 역할도 과거 명령자에서 조정자로의 변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대통령학 권위자인 함성득 고려대 교수를 초빙하여 제18대 대통령 당선자에게 요구되는 리더십이 무엇인지, 그 리더십을 통해 국가적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는 어떤 것이 있는지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레토 위트워 독일 캠프스키 호텔그룹 회장



마드리드 팔레스 호텔 총지배인 | 파리, 프랑크푸르트, 제네바, 테헤란 인터컨티넨탈호텔 총지배인 | 스위스에어 네슬레 스위스호텔 부사장 | 1995년 캠프스키 호텔그룹 회장

〈수상〉 Freedom of the city of Paris, Knight of Honor of France, The American of Hospitality Sciences(AAHS) 2006~2007 연속 수상

함성득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 텍사스(오스틴)대 존슨정책대학원 석사 | 미 카네기멜론대 하인즈정책대학원 박사 | 미 조지타운대 교수 및 아시아공공정책연구소 소장 | 미 스탠퍼드대 후버연구소 Ernst & Young Fellow | 미 행정학회(ASPA) 연례학술회의 준비위원장 | (재)한국의회발전연구회 상임이사 | 국회헌법연구자문위원회 간사위원 |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미국학연구소 소장 | 한국대통령학회 회장 | (사)한국대통령학연구소 이사장

〈상훈〉美 존슨대통령 최우등상, SBS재단 해외연구교수 선정, 제1회 연정학술상, 고려대 석탑강의상, LG연임재단 해외연구교수 선정 외
〈저서〉장관론, 대통령비서실장론, 대통령학 외

시진핑 경제의 위험한 진실

제1764회 11월 15일(목)

롯데호텔(소공동) 3층 사파이어볼룸

지난 20년간 중국은 우리 경제에 '축복'과 같은 존재였다. 중국 덕택에 우리나라는 큰 충격 없이 산업 고도화를 이룰 수 있었고, 세계의 공장 중국은 우리에게 수출 시장을 제공했다.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때는 중국에서 위기 극복의 돌파구를 찾기도 했다.

그러나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이다. 향후 10년간 일어날 중국 경제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다면 중국은 우리에게 축복이 아닌 재앙으로 다가올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중국의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도전 앞에 직면하게 될 시진핑 시대의 중국은 또 다른 개혁을 추진할 것이다. 언제나 그랬듯 중국의 경제구조 개편으로부터 개혁은 시작될 것이다. 생산의 국내 통합, 생산과 시장의 통합, 제조와 금융의 발전 통합 등 이른바 '3통(三通) 패러다임'으로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려 할 것이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제조업 규모를 갖고 있고, 대부분의 분야에서 1, 2위의 시장규모를 가지고 있다. 개혁 개방 30년 만에 세계 제1의 수출대국 및 외화보유국이 되었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오랜 시간 특파원으로 중국 현지를 관찰하며 전문가의 시각을 길러온 한우덕 중앙일보 중국연구소장을 초빙하여 한중수교 20주년을 돌아보며, 시진핑이 주도할 중국의 향후 10년의 미래, 그리고 우리의 대응방안을 모색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노사발전재단 협력세미나〉

한국형(K-Style) 성과주의 - 진화 방향과 삼성 사례

제1765회 11월 22일(목)

롯데호텔(소공동) 3층 사파이어볼룸

성과주의 인사제도는 이미 우리나라 기업에서도 보편적인 인사전략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운용의 실재상 우리의 전통적인 연공제와는 거리가 있어 중간관리자 등의 반발을 사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성과주의 자체가 우리 기업 문화의 새로운 대세라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고유의 경영 관행과 기업의 문화를 바탕으로 성과주의에 대한 정확한 좌표를 재설정할 필요성이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한국형 성과주의 인사의 발전 방향' 보고서에서 "외환위기 이후 국내 기업들이 생존 차원에서 서구식 성과주의 인사제도를 급작스럽게 도입하면서 장기적 인재 육성에 소홀하거나 팀 간 협력이 저해되는 등의 부작용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기업 경쟁력의 원천이 인적자원, 기업 문화, 브랜드 등 무형자산으로 옮겨가고 있는 상황에서 단기적 재무지표 중심의 성과주의로는 장기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연구회는 노사발전재단과 함께하는 고용구조의 다양성에 대한 협력세미나로 HR 관련 전문 컨설팅 활동을 하고 있는 가재산 조인스HR 대표를 초빙하여 성과주의 인사제도의 국내외 사례와 시사점을 통해 진정한 한국형 성과주의 모델을 찾아보고, 성과중심 인사제도의 운영 극대화 방안을 모색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노사발전재단 협력세미나〉

기업의 새로운 DNA - CSR에 주목하라

제1766회 11월 29일(목)

롯데호텔(소공동) 3층 사파이어볼룸

탐스슈즈는 소비자가 신발 한 켤레를 사면 다른 한 켤레를 제3세계의 아이들에게 기부하는 독특한 판매방식으로 창업 4년만에 세계적인 브랜드로 성장한 기업이다. 이는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이 사회에 지속적인 도움을 준 대표적 비즈니스 모델 사례이다.

최근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국내 소비자 78%는 사회공헌 활동이 우수한 기업의 제품은 비싸더라도 구매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2007년 8.8%에 비해 10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더욱이 최근에는 CSR을 넘어 기업이 속한 업종의 특성을 고려해 가장 알맞은 형태의 공유가치 창출 CSV(Creating Shared Value)를 고민하는 기업들도 늘어나는 추세다. 공익적인 가치를 창출하면서 동시에 경제적인 이익도 꾀한다는 것이다. 또한 CSR은 회사가 일궈온 지속가능경영 중점 과제와 성취 결과를 보여주고, 미래의 발전을 이끌 인재육성 전략과 핵심기술력 개발을 통한 발전 등 '사람과 기술' 중심의 지속가능 활동을 이끌어 갈 수도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사회 환원이 아닌 본질적인 비즈니스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번 연구회는 노사발전재단과 함께하는 고용구조의 다양성에 대한 협력세미나로 LG의 HR부문을 거쳐 CSR을 관장하고 있는 김영기 부사장을 초빙하여 최근 불어오고 있는 기업의 새로운 생산 가치 CSR 활동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을 갖는다.

한우덕 중앙일보 중국연구소 소장



한국외국어대 중국어학과 졸업 | 중국 상하이 화동사범대학 박사 | 한국경제신문 기자, 베이징·상하이 특파원 | 중앙일보 중국연구소 부소장

〈저서〉 중국의 13억 경제학, 중국 중시 콘서트, 우리가 아는 중국은 없다-시진핑 시대 중국 경제의 위험한 진실 외

가재산 조인스HR 대표



서강대 경영학과 졸업 | 서강대 경영대학원 MBA 수료 | 삼성회장 비서실 인사팀, 삼성생명 인력개발, 인사기획팀 부장, 투융자사업부 상무 | 삼성자동차 인사·교육팀 이사, 경영지원팀장 | A&D신용정보(주) 대표이사 | 노

동부 BEST HRD 평가위원 | 행정자치부 지방혁신 전문위원 | 숙명여대 평생교육원 교수 | 한국형인사조직연구회 회장 | GLG(다국적 기업) HR부문 전문위원

〈저서〉 어떻게 최고의 인재들로 회사를 채울 것인가?, 10년 후 무엇을 먹고살 것인가, 성공 에너지 어닝 파워, 중소기업 인재가 희망이다, 쉼본 인생경영 외

김영기 (주)LG CSR 부사장



서강대 경제학과 졸업 | 美 브리검영대 The Marriott School of Management, 경영학 석사 | 서울과대학 합대학원대학교 경영학 박사 | LG 그룹 회장실, 인사팀장(이사) | LG 구조조정본부, 인사지원팀장(상무)

| LG전자 HR부문장(부사장), CRO(부사장) | 중앙노동위원회 사용자위원 |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 회장 | 노사관계발전위원회의 위원 | 국제백신연구소한국후원회 이사 | 미래인재포럼 위원 | 교과부 정책자문위원회 평생직업교육분과 위원

〈상훈〉 근로자의 날 은탑산업훈장, 지속가능경영대상 국무총리표창 외

〈저서〉 전략적 HR로드맵(역), 리더십 코드(역) 외

December

매주 목요일 07:00~09:00

대변혁의 세계와 금융 산업의 미래

제1767회 12월 6일(목) 롯데호텔(소공동) 2층 에메랄드룸

오늘날 우리는 경기 순환적 금융·재정위기와 함께 구조적 변화라는 우리 삶의 패러다임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거대한 변혁의 시기에 살고 있다. 때문에 미래를 올바르게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한 충분한 고찰이 필요하다.

최근 글로벌 경제는 유로존 위기의 장기화와 미국의 경기회복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이에 따른 중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 등으로 1930년대의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양극화, 고령화, 고실업 문제 등과 같이 이전에는 경험해본 적이 없던 보다 근본적인 문제들도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이러한 거대한 변혁과 함께 현재 우리나라 금융 산업은 과거 일본이 겪었던 저성장, 저금리 시대에 직면해있으며, 이로 인해 향후 부실채권 증가, 대출수요 감소, 순이자마진의 지속적 하락 등으로 은행 등 국내 금융 산업도 저성장, 저수익 구조가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외환은행의 윤용로 은행장을 초빙하여 2008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글로벌 금융·재정위기로 인한 사회 구조적인 변화상들에 대해 알아보고, 저성장, 저금리 시대에서 금융 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효율성 제고, 신규 비즈니스 확대 등 고객에게 새롭게 다가가려는 노력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윤용로 외환은행 은행장



한국외대 영어과 졸업 | 서울대 행정학 석사 | 美 미네소타대 행정학 석사 | 제21회 행정고시 합격 | 재무부 경제협력과, 은행과 | 대통령 비서실 규제완화점검단 | 미국 애틀랜타 FRB 및 통화감독청 파견 | 재정경제원 부동산실명반장, 관세협력과장 | 재정경제부 장관비서관, 외화자금과장, 은행제도과장 | 금융감독위원회 공보관, 감독정책2국장 |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차관급) | 제22대 기업은행 은행장 |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인간개발연구원 송년의 밤

TPT멘토대학 후원을 위한 마중물 콘서트
송년파리에
초대합니다

일시: 12월 13일(목) 오후 6시~

장소: GS타워 아모리스홀(역삼역)

문의: 인간개발연구원(02-445-1949)

* 상세 프로그램은 추후 안내드리겠습니다.



정치·경제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지도자상 - 평화통일을 준비하는 정치·경제 선진국을 향한 도전

제1768회 12월 20일(목) 롯데호텔(소공동) 2층 에메랄드룸

12월 19일 치러질 대선을 기점으로 우리는 향후 5년간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새로운 지도자를 맞이하게 된다. 곧이어 당선자를 중심으로 새로운 정부 구성에도 박차가 가해질 것이다. 이와 함께 국민들은 당선자가 후보시절 국민을 상대로 약속했던 수많은 공약들이 온전히 국민과 국가를 위해 실현되어지기를 바라고 있다.

대통령 당선자는 헌법준수, 국가보위, 평화통일, 경제성장, 국민의 자유와 복리증진, 민족문화 창달 등을 중점 과제로 국정을 이끌어 갈 것이다. 특히 평화통일과 경제성장은 미래 국운을 좌우할 주요한 과제이기에 당선자가 이에 임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 헌법 제4조에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주의적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를 기반으로 대북정책에 있어 견제와 포용의 정책을 조화롭게 전개해나가야 할 것이다. 세계경제가 불황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가운데, 경제 대국으로 우뚝 선 대한민국이 진정한 경제 선진국으로서 면모를 갖추고 세계경제의 중심에 자리할 수 있는 경제성장 정책 또한 필요할 것이다.

이 외에도 당선자는 선거를 치르는 동안 유발된 각종 갈등을 봉합하고 화합의 정치를 실현하는 한편, 국민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통합의 사회를 구축하는데도 힘써야 할 것이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대선 다음날 새 지도자를 맞이하는 출발점에서 정치학자 출신의 김학준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과 경제학자인 정갑영 연세대 총장을 초빙하여 제18대 대통령 당선자에게 바라는 점과 조언을 들어봄으로써 정치·경제의 선진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한 새 국가지도자의 세기적 사명과 창조적 리더십에 대해 논의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김학준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서울대 정치학과 졸업 | 서울대 정치학 석사 | 美 피츠버그대 정치학 박사 |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 | 인천대 제2대 총장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제29대 회장 | 한국정치학회 제29대 회장 | 동아일보사 사장, 회장 | 학교법인 단국대학 이사장

〈상훈〉 황조근정훈장

〈저서〉 한국정치론, 강대국 관계와 한반도, 독도는 우리 땅, 북한 50년사(역) 외

정갑영 연세대 총장



연세대 경제학과 졸업 | 美 코넬대 경제학 석. 박사 |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교무처장, 원주캠퍼스 부총장 | 한국산업조직학회 회장 | 대통령 직속 농어업, 농어촌 특별대책위원회 위원 | 삼성경제연구소 석좌 연구위원 | [재]자유기업원 이사장

장 | 동아일보 객원 논설위원 | [사]정보통신포럼 회장

〈상훈〉 연세학술상, 매경 이코노미스트상, 전경련 시장경제대상 외

〈저서〉 카론의 동전 한 닢, 명화 경제토크, 열보다 더 큰 아홉, 정갑영 교수의 알콩달콩 경제학, 데메테르의 지혜로운 선택 외



제1756회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경제민주화를 넘어 동반성장의 사회로

2010년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1년 4개월 동안 동반성장위원회를 맡았다. 그리고 지난 6월부터는 동반성장연구소를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다. 동반성장연구소를 맡기까지 여러 가지 동기가 있었지만 우선 우리 사회의 심각한 양극화를 방지했다가는 한국 경제가 존립할 수 없을 것이라는 걱정이 있었다. 또한 경제학 교수로서, 대학 총장으로서, 총리를 역임한 사람으로서 수수방관할 수 없다는 의무감과 책무감이 있었다.

가난으로 중학교 진학도 어려웠던 학생 시절, '3·1운동의 34인'으로 유명한 프랭크 윌리엄 스코필드 박사로부터 개인적으로 물심양면의 많은 도움을 받았다. 1920년 일제에 의해 추방당했다가 1958년 한국에 돌아온 스코필드 박사는 1960년대 중반, 급격한 경제성장에 비해 심화되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걱정했고, 나에게 경제학을 공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역할을 하라고 권유했다.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해답, 동반성장

현재의 한국 경제는 밝은 면도 있고, 어두운 면도 있다. 밝은 면부터

말씀드리면, 2009년 세계경제 위기 당시 한국은 OECD 국가 중 플러스 성장을 한 세 개 나라 중 하나였다. 또 하나는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20-50클럽(1인당 소득 2만 달러, 인구 5천만)에 가입, 국가 신용등급이 일본이나 중국보다 높거나 같을 정도로 좋아졌다는 사실을 꼽을 수 있다.

반면 어두운 면도 많다. 가장 먼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 청년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OECD 평균치의 절반인 25.5% 밖에 안 된다는 사실이다. 또한 108만 가구로 추정되는 하우스푸어와 900조를 넘어선 가계 부채, 심각한 양극화 문제도 '시한폭탄'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밝은 면은 더 밝게 하고 어두운 면은 덜 어둡게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이다. 밝은 면을 더 밝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를 위해서는 성장이 필요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투자가 필요하다. 하지만 대기업은 돈은 많은데 투자 대상이 부족하고, 중소기업은 투자 대상은 넉넉한데 돈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를 위한 중기적 처방은 무엇일까. R&D의 중심을 'D'에서 'R'로 옮기는 것이다. 장기적인 처방은 교육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 창의성을 기르는 교육은 아무리 강조되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한다.

〈교육에 관한 몇 가지 단상〉이라는 책에 따르면 체(體), 덕(德), 지(智) 순서로 서술되어 있다. 하지만 우리의 교육은 거꾸로 되어있다. 체는 가르치지 않고, 덕은 가르칠 능력이 없고, 지만 적당히 가르치고 있다. '덜 틀리기 경쟁'을 시키는 교육으로는 창의성을 기를 수 없다. 끊임없이 질문하고 사색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교육 환경을 통해서 창의성이 넘치는 국민을 키워내면 핵심 원천기술, 대기업의 투자 대상이 더 생겨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중·장기적 처방 외에 단기적인 처방은 없을까? 답은 아주 간단하다. 동반성장이다. 실제로 동반성장위원회를 이끌면서 '중소기업 적합 업종 선정', '협력이익배분제', '조달청 중소기업 직접발주 비율 80% 늘리기' 등을 추진했다.

대기업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투자 대상이 없고, 중소기업은 투자 대상을 가지고 있지만 돈이 없다. 이 문제 해결의 열쇠는 대기업에 몰려 있는 돈을 '합리적'으로 중소기업에 흘러가도록 유도하는 것에 있다. 그래야만 돈이 없어서 투자를 못하는 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중소기업 적합 업종 선정'을 통해 신청받은 230개 업종 중 82개 업종을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선정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10조 가까운 돈이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흘러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초과이익공유제는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이 제도는 삼성

에서 이미 오랫동안 실시해 온 것이다. 나는 이 제도를 '사내'에서 '사외'로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대기업이 많은 수익을 올린 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중 상당 부분이 협력업체로부터 납품가격을 후려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대기업의 수익률은 8~9%이지만 중소기업이 2~3%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초과이익의 일부를 공유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반증이다. 초과이익을 공유해 중소기업이 튼튼해지면 대기업 역시 득을 보지 않겠는가. 초과이익공유제는 많은 비판을 받다가 '협력이익배분제'로 개명 후 통과되었다.

이 제도 역시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정부가 물자를 발주할 때 중소기업에 직접 발주하는 비율을 80% 이상으로 늘리자고 한 '조달청 중소기업 직접발주 비율 80% 늘리기' 제안은 아직 실행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머지않아 실행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경제적 영역 넘어 '사이(間)'가 존재하는 곳에 반드시 필요

동반성장위원회를 이끌면서 많은 비난과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그 1년 4개월은 인생에서 가장 바쁘고 보람찬 시기였다고 자부한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동반성장이 도대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 동반성장은 경제적 영역을 넘어서 보다 넓은 가치를 가진 개념이다. 빈부간, 대기업 대 중소기업, 수도권과 비수도권, 남여 간, 남북 간, 동북아 국가 간... 이렇듯 동반성장은 넓은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서울대 총장 재임 시 '지역균형 선발제'를 실시했다. 각 지역 교장선생님들께 3명 이내로 추천받은 학생들 중 1천 명을 뽑는 것이 지역균형 선발제이다. 총장에 취임하고 살펴보니 서울 출신 학생이 42%, 특히 강남 출신이 25%나 되었다. 전체 인구 대비 20%에 비해서 지나치게 많은 숫자다. 그래서 많은 반대와 비난을 무릅쓰고 '지역균형 선발제'를 도입했다. 그런가 하면 서울대 역사상 처음으로 학생처장, 연구처장을 여성교수로 임명했다. 개성공단도 남북간 동반성장의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동북아의 동반성장은 한일 간, 한중 간 관계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얼마 전 중국 심양을 방문했는데, 심양시장이 내가 동반성장위원회 운영 경험이 있는 것을 알고 심양시와 동반성장을 같이 해보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만리장성에 한국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면 세계 7대 경관 중의 하나인 제주도에도 중국 사람들이 많이 방문할 것이라는 이야기였다. 이것도 동반성장의 한 예이다.

FTA도 마찬가지이다. 일본과 중국의 기자들에게 "한일 FTA도 위험하고, 한중 FTA도 위험하다. 한중 FTA를 먼저 하면 일본이 우리를 경계할 것이고, 한일 FTA를 먼저 하면 중국이 우리를 경계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중일 FTA를 한꺼번에 하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다.

그렇다면 동반성장을 왜 하려고 하는 걸까. 말씀드렸듯이 한국 경제의 밝은 면을 더 밝게 하고 어두운 면을 덜 어둡게 하는 면도 있지만 동반성장은 한국의 역사적 전통과 정서에 딱 들어맞는다.

‘경주 최부자집’ 이야기는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모두가 청송한다. 만석 이상 모으지 마라, 흥년에는 땅을 사지 마라, 백 리 안에 있는 사람은 굶기지 마라, 검소하게 살아라. 이것이 경주 최부자집 가풍이다. 이 가풍을 청송하는 것은 우리 정서에 그만큼 들어맞기 때문이다. IMF를 맞아 범국민적으로 일었던 ‘금 모으기 운동’을 보면 확실히 동반성장은 인간의 본성과 맞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과연 동반성장이 잘 되어 가고 있는가. 물론 조금의 성과는 있다. 동반성장위원회의 목적이 동반성장의 분위기 확산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고, 어느 정도 성과는 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지난 5월 56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동반성장 지수를 발표했다. 여기서 A를 받은 기업이 동반성장을 잘하고 있는 것인지 묻는다면 꼭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고 싶다. 학교 다닐 때 실력은 별로 없는데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있었다. 대기업은 인재를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동반성장 지수를 높게 받을 수 있는지 다 알고 있다. 때문에 단지 점수를 높게 받으려고만 하는 것뿐 실제로는 점수가 좋은 기업들도 굉장히 ‘악랄한’ 경우가 많다.

그나마 과거에 비해서는 가격 후려치기도 조심스럽게 하고, 불공정 거래행위도 조심스럽게 하고 있다. 방법은 아주 많다. 주문할 때 문서를 쓰지 않고 구두로 주문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최근 안산의 한 공장을 방문했었다. 그곳 담당자 말이 현재 모 대기업에 납품하고 있는데, 10년 전에는 납품가로 1억을 주더니 지금은 가격을 낮추고 낮

춰서 4천만 원을 준다고 했다. 그러면서 10년 전에 너무 많이 받은 것은 아니었는지 모르겠다는 농담을 했다. 이렇듯 납품가 후려치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어음 결제로 대금이 치러지는 경우도 중소기업에는 큰 문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재벌총수의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 단기적인 실적 위주로 인사를 평가할 것이 아니라 동반성장을 잘하는 사람에게 혜택을 줘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국민들에게 기대기보다는 결국 대통령의 의지에 달려있다. 정책 의지, 정책 이념에 달려 있다. 총리로 있을 때도, 동반성장위원회를 만들 때도 대통령은 서민을 위해서 일하자고 하셨다. 하지만 마음에 비해 의지가 굳지는 않은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

중소기업 지원 통해 경제민주화 이루어야

경제민주화와 동반성장은 과연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한마디로 경제민주화는 동반성장의 수단이다. 나는 이미 1990년 <도전받는 한국 경제>라는 책에서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정의를 한 적이 있다. 정치민주화는 유권자가 자유의사에 의해 1인 1표를 행사함으로써 폭력이나 외압에 의하지 않고도 정권이 교체되는 것이다. 경제민주화는 시장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주체들인 기업노동자, 소비자 등이 대등한 관계가 되는 사회라고 할 수 있다.

기업노동자가 일자리를 찾는데, 기업이 제시한 근로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NO’라고 거절할 수 있으면 이것이 바로 경제민주화 사회의 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노동자가 근로조건을 거절할 수 있으려면 ‘생활이 가능하다’라는 조건이 성립되어야 한다. 생활이 되지 않으면 거절할 수 없다. 오늘 일자리를 못 찾으면 내일 다른 곳에 가서 찾을 일자리가 있어야 한다. 일자리가 충분하고 생활이 가능해야 노동자가 ‘NO’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다. 각자가 최저 생활 수준을 확보해야 한다.

기업과 소비자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소비자가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는 제품이 없다면 소비자는 자유로운 구매 선택권이 없는 것이다. 소비자와 기업 간의 경제민주화란 소수 기업에 의한 독점체제가 형성되어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 다양한 기업이 경쟁할 수 있는 경쟁체제와 소비자 선택권이 갖춰져야 한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관계 역시 대기업이 가격 후려치기를 할 때 중소기업이 ‘NO’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 중소기업도 선택해서 판매할 수 있어야 한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선택할 수 있는 경쟁력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경제민주화 사회는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이 강한 국가, 사회안 전망이 완전히 구축된 사회, 그리고 경제력 집중이 존재하지 않는 경

제체제이며, 노동권, 소비자 권리 등 공동체 구성원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이다.

이를 위해 선결되어야 할 것은 경제력 집중 해소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경제민주화는 기존 질서는 인정하되 앞으로 공정거래규칙을 잘 지켜나가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다. 일감 몰아주기 제한, 재벌총수 집행유예, 보석 금지가 경제력 집중을 해소할 수는 없다. 슈퍼 헤비급 선수와 플라이급 선수를 같은 링에서 싸우게 해놓고 공정, 질서, 규칙을 논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큰 사람과 작은 사람의 경쟁은 애초에 무리다. 재벌을 손봐야 한다는 민주당의 정책도 미흡하기는 마찬가지다. 진정한 경제민주화를 위해서, 궁극적으로 동반성장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숙명여대 유진수 교수의 <가난한 집 만아들>이라는 책을 읽었다. 그 책의 내용은 대략 이렇다.

시골에 자식 셋을 둔 가난한 부모가 있었다. 장남이 성공하면 두 동생들을 보살펴줄 것으로 믿고, 어려운 살림에 눈발 팔고 소를 팔아 장남을 의사로 키웠다. 그러나 부모의 전폭적인 지원과 형제의 희생으로 성공했음에도 장남은 자기도 먹고살기 힘들다며 부모 형제를 외면했다. 장남 때문에 부모의 지원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가난만 물려받은 두 동생은 당장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게 살아야 했다.

이는 지난 50~60년간의 한국 경제발전 상황과 같은 이야기다. 다 키

울 수 없으니 우선 대기업 먼저 키우고 보자며 지원을 해왔는데, 이 시점에 와서 대기업들은 혼자 다 큰 것으로 생각하고 중소기업을 고려하지 않는다. 중소기업이 잘 돼야 대기업도 잘 된다는 자각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중소기업 위주의 산업 정책을 펼쳐야 할 시기가 온 것이다.

지금 동반성장연구소에서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급여를 대기업의 80% 수준으로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를 연구하고 있다. 만약 그 수준까지 가게 되면 굳이 대기업에 가려고 발버둥치지 않을 것이다. 굳이 일류대학에 진학할 필요도 없다. 굳이 일류대학에 진학하지 않으면 무리하게 사교육을 할 필요도 없다. 만약 이렇게만 이루어진다면 교육문제부터 실업문제까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대졸자들은 절대 중소기업에 가지 않는다. 노동시장에서 미스매치가 벌어진 것이다. 대기업은 구직난, 중소기업은 구인난이다. 구인난은 당연할 수밖에 없다. 작업환경이 열악하고 월급은 반밖에 되지 않는데 누가 중소기업에 가려고 하겠는가.

결국 교육개혁까지 다 포함되어야 하는 문제이지만 경제문제로만 본다면 중소기업 급여가 대기업의 80% 수준까지 갈 수만 있다면 동반성장도 해결될 뿐만 아니라 경제민주화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만 되면 우리 사회의 밝은 면은 더 밝아지고 어두운 면은 덜 어두워지게 될 것이다. **김세진**





제1758회 인간개발경영자연학회

한민족의 뿌리, 고구려

우리나라의 국호는 대한민국(大韓民國)이다. 이를 줄여 우리는 ‘한국’이라고 부른다. 또한 우리는 일상 속에서 한국인, 한민족, 한반도 등의 단어를 자연스럽게 쓰고 있다. 국호에는 의미가 있기 마련이다. 일본(日本)은 해가 뜨는 곳, 중국(中國)은 세계의 중심, 미국(USA)은 아메리카합중국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과연 한국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리고 국호에 등장하는 ‘한(韓)’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놀라운 것은 어떤 전문가나 역사학자도 이 물음에 명쾌한 답을 내놓지 못한다는 것이다. 한강을 왜 한강(韓江)이 아니라 한강(漢江)이라 부르는지, 왜 대한문(大韓文)이 아니라 대한문(大漢文)이라고 썼는지, 일본에 나라를 빼앗기기 전까지 왜 서울을 한성(漢成)이라고 불렀는지 아무도 모른다.

대한민국의 한(韓)은 어디에서 왔는가

중국을 여행하다가 현지 학자들과 의식 있는 사람들에게 항의를 받은 적이 있다. 그들은 한결같이 우리나라가 왜 한성에서 서울로 이름을 바꿨냐고 따져 물었다. 사실 일본의 침략과 지배를 받지 않았다면 우

리는 한성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일본의 식민지 기간에 한성에서 경성으로 바뀌었고, 해방 후 다시 서울로 바뀐 것이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흔치 않다. 그만큼 우리는 국가의 근본과 역사에 대해 무관심하게 살아가고 있다. 한강과 대한문의 한(漢)은 이미 한국의 한(韓)으로 바뀌어야 했다. 단지 아무도 여기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은 채 살아왔고, 그러는 사이 우리나라는 경제 대국이 되었다.

한국의 한(韓)의 의미에 호기심을 가지고 이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대한민국은 대한제국(大韓帝國)에서 '제(帝)'를 '민(民)'으로 바꾼 데서 비롯되었다. 고종 실록을 보면, 대한제국으로 이름을 지은 이유를 '삼한을 계승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이 당시 역사적 분위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당시 우리나라는 왕이 나라를 이끌었다. 그런데 다른 나라로부터 계속해서 수탈을 당하다 보니 분위기를 바꾸고자 황제로 칭하기 위해 조선을 대만으로 개명한 것이다.

역사를 보면 대다수 나라는 새로운 국호를 지을 때마다 화려한 과거를 계승하려고 했다. 실제 왕건의 고려는 만주를 호령했던 고구려를 계승한다는 의미가 있다. 이성계의 조선은 단군이 통치하던 고조선을 계승한다는 의미로 지어졌다.

그런데 삼한은 한반도 남부에 있던 작은 나라들로 마한·진한·변한을 가리킨다. 두만강과 압록강을 국경으로 두고 있었던 조선이 고작 한반도 남단에 움츠리고 있던 삼한을 잇고자 국호를 바꿨을까? 그렇다면 삼한이 그 전에 이미 한(韓)이라는 웅혼한 뿌리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고 생각했다.

하지만 한(韓)이라는 글자의 원천을 찾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한(韓)이라는 글자가 등장한 기록을 찾아냈다. 그러다가 마침내 4서3경(논어, 맹자, 중용, 대학, 시경, 서경, 주역) 중 하나인 <시경(詩經)>에서 '한'이라는 글자를 발견했다. 시경은 BC 10세기 무렵 등장한 책으로 중국 역사상 가장 최초로 만들어진 책이다. 공자는 제자들에게 시경이야말로 책 중의 책이므로 늘 가까이하라고 이르기도 했다.

<시경> 한혁(韓奕) 편에는 '한후(韓侯)가 수도에 들자 주(周)의 선왕(宣王)은 경계를 논하고 조카딸을 시켜 밤 시중을 들게 했다는 대목이 나온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한은 초(楚)의 항우와 한(韓)의 유방이 천하 패권을 놓고 다툰 때 유방을 도왔던 명장 한신(韓信)의 조국인 한과는 다르다. 전국 7웅의 하나였던 한은 BC 4세기에 건국된 반면 시경은 이미 BC 10세기에 만들어진 책이기 때문이다. 한후가 우리나라와 관련이 있다는 직감은 가졌지만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

그렇게 몇 년간 추적이 고착된 가운데, 우연한 기회에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한후가 동한(東韓)의 대학자 왕부가 지은 <잠부론(潛夫論)> 씨성(氏姓) 편에 다시 한 번 등장한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 왕부는 동한 시대 사람으로 중국 역사상 가장 뛰어난 학자 중 한 명이다. <잠부론>은 왕부가 자신이 살던 시대까지의 모든 책을 읽고, 그의 지식을 총망라하여 저술한 백과사전과 같은 책이다.

이 책에는 '시경에 나오는 한후의 나라는 연나라 부근에 있었고, 그의 후손은 위만에게 망하여 바다를 건너갔다' 등의 기록이 나온다. 위만은 고조선을 멸망시킨 인물이고, 고조선 준왕이 그에 의해 바다를 건넜다. 즉, 고조선의 준왕은 한후의 후손이라는 이야기다. 한후의 나라는 지금의 만주 오른쪽에 있었고, 그곳에 있던 것은 우리밖에 없다. 한후는 바로 우리의 조상인 것이다.

위만이 멸망시킨 조선을 우리는 고조선이라 하는데, 이후 그 자리에 한무제가 4군을 세웠다. 이를 한사군이라 하며, 낙랑(樂浪)·임둔(臨屯)·진번(真番)·현도(玄菟)에 세워졌다. 한후의 후손이 위만에게 망하여 바다를 건너갔다는 구절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고조선의 수도가 평양이 아니라는 점이다. 우리는 고조선의 수도를 평양으로 배워왔으나 이것은 일본 학자들이 만들어놓은 것이다. 위만에게 망하여 바다를 건넜다고 했으니 평양에서 바다를 건넌 것이 아니라 발해만을 건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럼 고조선은 중국 만주 쪽에 있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한사군이 설치된 후 우리 조선의 후예들이 만든 나라가 바로 고구려이다. 고구려는 우리 민족의 정통성을 계승해오고 있는 나라이다.

나는 서지학적 추리와 추적으로 우리의 5천 년 역사 중에서 3천 년 전의 내용을 찾아냈지만 과학적으로 한을 추적해서 증명한 사람이 있다. 박창범 서울대 천문학과 교수의 시뮬레이션 실험이 그렇다. 주류 사학계가 위서로 규정하고 있는 <단군세기>는 고려 말기 이암이 썼는데, 이 책에 "13세 단군 흘달 재위 49년(서기로 하면 BC 1734년)에 오성취루(五星聚婁: 화성, 수성, 목성, 금성, 토성이 양 별자리에 한 줄로 모였다) 현상이 있었다"는 기록이 나온다. 박 교수는 BC 1733년 실제로 그런 현상이 있었음을 컴퓨터로 재현해냄으로써 과학으로 잃어버린 우리의 3천 년 역사를 증명했다.

잃어버린 역사 되찾는 <고구려> 집필

고구려의 건국이념은 서진(西進)이었다. 고구려를 지배하려던 중국인들을 몰아내자는 것이다. 그러나 건국 이후 여러 왕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성공하지 못했고, 미천왕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낙랑과 현도를 쳐 승리하기에 이른다.

우리는 고구려의 왕들 중 광개토대왕만을 기억하지만 실제 가장 훌륭한 왕은 미천왕이다. 400년 동안 지속되던 중국의 지배를 물리치고 우



리의 온 지역을 찾아낸 왕이 바로 미천왕이다. 미천왕의 아들이 고국 원왕이고, 그의 아들이 소수림왕, 그 아래로 고국양왕이 있으며, 그의 후계자가 광개토대왕이고, 그다음이 장수왕이다.

나는 미천왕부터 장수왕까지 여섯 왕의 이야기를 <고구려>라는 소설로 쓰고 있다. 글을 쓰다 보면 너무나 원통해 가슴이 미어진다. 고구려는 700년이나 지속된 나라인데, 안타깝게도 고구려 자체가 남긴 기록이 하나도 없다. 유일한 흔적이 압록강 만포 건너편에 지안이라는 곳에 있는 광개토대왕비와 충주의 중현고구려비 두 개 뿐이다. 현재까지 1,500매 정도의 원고를 썼는데, 참고자료로 삼을만한 것은 두 페이지도 되지 않는다.

세계 전쟁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많은 군사가 동원된 것이 수나라 양제가 고구려를 침공할 때 동원한 113만 대군이다. 그리고 이를 물리친 것이 을지문덕이다. 그러나 우리는 을지문덕이 어디 출신인지, 아버지가 누군지, 계급이 무엇인지, 언제 태어나고 죽었는지, 왜 죽었는지 아는 것이 없다.

우리는 고구려를 자주 입에 올리지만 정작 고구려에 대해 아는 것이 너무나 없다. 중국인들 앞에서 고구려가 우리 역사라고 하면 그들은 코웃음을 친다. 전문가뿐만 아니라 중국 역사를 안다는 사람들도 고구려의 영역이 현재 누구의 땅이며, 당시 고구려인들이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지 물으면 대답할 말이 없다.

티베트, 신장, 위구르를 중국 역사에 편입한 것이 '서남공정'이다. 서남공정 이후 중국이 눈을 돌려 시작한 것이 '동북공정'이다. 고구려가 중국의 역사라는 것이 동북공정의 핵심이다. 그런데 지금 중국은 '요하공정'을 시작했다. 도시개발 과정에서 유물들이 발굴됐는데, 황하 문명보다 1,000~2,000년 앞서는 요하 문명의 유물들이었다. 그런데 한반도에서 나오는 것들과 비슷한 유물이 이곳에서 쏟아져 나왔다.

세상의 중심이라는 중화사상과 4대 문명 중 하나인 황하 문명에 대해

엄청난 자부심을 가진 중국인들에게 이보다 1,000~2,000년 앞선 요하 문명의 출현은 큰 충격이었다. 변방으로 치부하던 요하에서 더 이른 시대의 유물이 나왔고, 그 유물로 미루어 보아 이미 하나의 문명권을 이루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자 동북공정보다 요하공정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서둘러 요하공정을 시작한 것이다.

그 이전까지 중국은 요하 문명을 동이족(東夷族)의 것이라 여겼고, 치우(蚩尤)의 것이라 했다. 사마천의 <사기(史記)>에 공손헌원과 치우가 싸운 기록이 있는데, 이 치우를 동이족의 조상이라 인정했지만 최근에 와서는 자신들의 조상으로 편입시켜버렸다. 한국인은 뿌리부터 중국인의 자손이라고 엄청난 돈을 들여 완벽한 이론을 만들어낸 것이다. 우리는 이에 전혀 대응하지 못하고 있고, 이에 대해 아는 사람도 없다. 이것이 내가 <고구려>를 쓰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13권짜리로 기획된 <고구려>는 현재 4권까지 발간되었다. 국내 유명 작가들이 앞다퉈 <삼국지>나 <초한지>를 집필하는 상황이 안타까울 뿐이다. 고구려를 다룬 기존의 대하소설이 결국 패배하는 운명의 연개소문에 편중돼 있는 현상도 문제다. 젊은이들이 이런 작품을 읽으면서 자신도 모르게 중국의 역사를 동경하고, 그 세계관에 빠져들기 전에 한국인의 얼과 혼이 담긴 작품을 써야 한다고 생각했다.

중국의 국력이 놀라운 속도로 강성해지고 동북공정과 요하공정이 강화되고 있음에도 도리어 한국인의 역사의식이 갈수록 희박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너무나 필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민족주의를 지나치게 강요하지 않으면서 한민족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갖도록 할 것이다.

역사 왜곡이 불러올 위험한 미래 대비해야

역사 왜곡은 굉장히 무서운 일이다. 일본이 100년 전에 한반도를 침략해올 때 내세웠던 논리가 '임나일본설'이다. <일본서기>라는 믿지 못할 일본의 역사서는 과거 한국에 '임나'라는 일본의 영토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광개토대왕비의 보이지 않는 글자가 '임나'라고 역지를 부려서 정한론(征韓論)의 명분으로 삼았다.

최근 한국, 일본, 중국이 영토문제로 대립하고 있는데, 영토문제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영토문제의 근간은 역시 역사문제이다. 고구려 역사를 제대로 정리해놓지 않으면 우리 자손들이 전쟁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독도 문제를 예로 보자. 일본 초·중·고 교과서에는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국경선을 그어 놔다. 초등학교부터 이렇게 배우면 10~20년 뒤에는 모든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믿을 것이다. 그럼 독도는 일본 땅인데, 왜 한국이 지배하느냐고 하면서 전쟁을 준비할 것이다. 우리는 지금 실효지배를 하고 있다고 안주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겪어야

할 전쟁을 자손들에게 미루는 꼴이다.

마찬가지로 중국의 동북공정과 요하공정도 지금처럼 '무력한 대응'으로 일관하면 '위험한 미래'를 후손에게 떠넘기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실제 중국이 고구려 역사를 가져가 버리면 북한의 정체성이 우리가 아닌 중국과 가까워진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북한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남한과 합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은 환상에 가깝다.

중국은 50개 소수민족으로 이루어진 나라로 소수민족의 분리와 독립을 매우 두려워한다. 신장이나 티베트에 작은 일이라도 벌어지면 후진 타오가 바로 진압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조선족은 말과 글이 강하고 중국에서도 가장 단합이 잘 되는 부족이다. 만약 남북이 통일되면 조선족은 한국과 매우 많은 교류를 할 것이 뻔하다. 그렇게 되면 통일된 한국과 조선족은 거의 합쳐지는 쪽으로 갈 것이 자명하기에 중국은 남북통일을 바라지 않는다.

또 하나 두려워하는 것은 남북통일이 되면 북한이 우리처럼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될 것이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한국과 국경을 마주하게 되면 한국의 민주화 물결이 천안문 광장에 터지리라 예상하는 것이다. 중국의 가장 큰 목표는 남북통일을 막는 것이다. 남북통일을 막는 몇 가지 방법 중 가장 유력한 하나가 중국과 북한이 역사나 문화의 뿌리가 같다고 믿게 하는 방법이다. 일단 북한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다음은 한국이다. 그래서 중국의 요하공정은 역사를 정리하는 것만 아니라 바로 정치이다.

〈삼국지〉보다 〈고구려〉 읽는 사회 만들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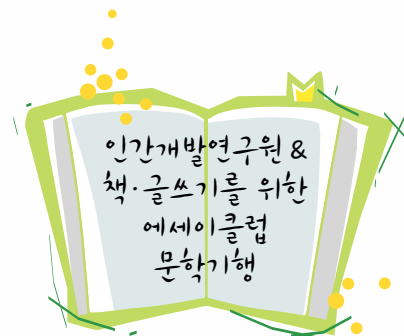
지금 소설로 쓰고 있는 미천왕 시대가 중국에서는 삼국시대이다. 미천왕부터 장수왕에 이르기까지 여섯 왕의 시대는 고구려 역사 중에서도 가장 드라마틱하고 재미있는 시대이다. 하지만 〈고구려〉를 집필하는 일은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니다. 무엇보다 사료가 부족하다. 지금까지 많은 작가들이 고구려에 대한 글을 쓰지 못한 이유는 자료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단 한 줄도 사실과 어긋나게 쓸 수는 없다. 어려운 작업이지만 이것이 고구려를 지키는 길이라는 생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의 지도층들은 '젊은이들은 삼국지를 읽어야 한다. 삼국지를 모르고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정작 우리의 젊은이들은 미천왕, 소수림왕 등 고구려의 위대한 왕들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그러면서 입으로는 '고구려는 우리 것'이라고 말한다. 이것이 격동하는 동북아 중심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이다. 이것은 마치 중국에게 '고구려를 가져가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젊은이들에게 〈삼국지〉를 읽기 전에 〈고구려〉를 읽게 하는 것, 이를 위해 〈고구려〉를 〈삼국지〉보다 재미있게 쓰는 것이 나의 사명이고, 고구려를 지키는 일이다. **김재**



섬진강 시인 김용택과 함께하는 문학작품 따라 거니는 섬진강 나들이



섬진강 시인
김용택

인간개발연구원 회원들의 글쓰기 작업에 도움을 주고자 설립된 ‘책·글쓰기를 위한 에세이클럽’이 연구원과 함께 ‘섬진강 나들이’ 문학기행을 떠났다. 지난 10월 20일, 깊어가는 가을 햇살을 가득 품은 채 흐르고 있을 섬진강으로 떠나기 위해 40명의 회원들이 새벽공기를 가르며 모여들었다. 특히 이번 여행은 가을 나들이를 함께하기 위한 부부동반 참여가 많아 더욱 풍성한 여행길이 되었다.

이번 문학기행의 목적지는 전북 임실의 ‘섬진강 시인’으로 유명한 김용택 시인 방문과 한국 근현대사의 대서사시를 남긴 소설 <토지>의 배경이 된 경남 하동의 최참판댁이었다.

자연과 호흡하며 글을 쓰는 시인을 만나

동트기 전 서울에서 출발한 버스는 시원스레 고속도로를 달려 금세 임실에 도착했다. 짧지 않은 길이였지만 늘 그렇듯 인간개발연구원 회원들이 함께하는 버스 안은 잠시도 쉴 틈 없이 자기소개와 좋은 이야기들을 공유하는 ‘달리는 공부방’이 되어 시간이 가는 줄도 몰랐다. 전북 임실군 덕치면 장암리. 시인 김용택이 나고 자란 마을이자 그가 초등학교 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치던 곳이다. 섬진강 상류 지역인 장암리에 도착한 회원들은 먼저 시인의 작품 배경이 된 섬진강 돌다리를 건너며 시인의 감성을 간접적으로나마 느껴볼 수 있었다.

흐르는 강물을 뒤로하고 시인의 본가에 모인 회원들은 본격적으로 김용택 시인에게 자연으로부터 느끼기, 자연과 대화하기, 자연에서 모티브 찾기, 그리고 어떤 시를 쓰고 어떻게 좋은 시를 쓸 수 있는지에 대한 미니강연을 들었다. 시인이 시골 마을과 자연을 소재로 소박한 감동이 묻어나는 작품을 쓸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로부터 전해들은 자연의 위대한 때문이라고 했다. 자연에서 일어나는 온갖 현상들이 세상을 이해하는데 많은 힌트를 줬다는 것이다.

특히 시인은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시를 써온 까닭에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교육은 가르치면서 동시에 배우는 것이다. 교육이란 하나를 배워서 열을 아는 것인데, 우리는 하나를 가르쳐주고 그것만 알아도 되는 교육을 하고 있다. 무엇이든 자세히 봐야 알게 되고, 무엇인지 알아야



이해가 된다. 이해가 되어야 그것이 비로소 내 것이 될 수 있다. 지식이 내 것이 될 때 인격이 완성된다. 지식이 인격이 될 때 인성이 가꾸어지고, 아름다운 영혼을 갖게 되고,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다. 이것이 교육이다.”

풍요로운 자연 속에서 아이들과 함께 호흡하며 글을 써온 시인의 철학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한 시간이 넘는 열정적인 강연에 회원들은 마당에 주저앉아 열심히 메모해가며 이야기를 들었다. 그렇게 아쉬운 김용택 시인과의 만남이 끝나고 일행은 경남 하동으로 출발했다.

평사리 들판을 품에 안은 소설 속 최참판댁

하동으로 이동하는 19번 국도, 구례부터 하동까지 섬진강을 따라 난 이 길은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길로 손꼽힐 만큼 풍광이 뛰어난 곳으로 유명하다. 하동이 가까워질수록 섬진강은 강폭을 넓히며 질푸른 물결의 웅장함을 드러내 회원들의 탄성을 자아냈다.

그 길을 따라 하동이 고향인 박춘봉 회장님, 이운수 부회장님, 김석문 사장님, 여호영 부회장님의 섬진강에 얹힌 이야기를 들으며 오후의 나른함도 잊어버린 채 하동에 도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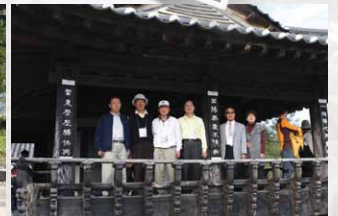
섬진강 물줄기를 따라 평사리 넓은 평야를 앞마당 삼아 들어선 최참판댁은 연구원과 함께 시민교육을 펼치고 있는 하동군청의 배려로 친절한 설명과 함께 둘러볼 수 있었다. 자칫 '드라마 촬영장으로 꾸며진 야외세트장' 정도로만 알고 말았을 최참판댁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하동군이 소설 <토지>를 이용한 스토리텔링에 얼마나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느끼게 해주었다. 주인공 서희와 길상의 어린 시절의 배경이 되는 영남의 대지주 최참판댁은 관광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지만 그림처럼 아름답고 눈에 익숙한 모습이 우리들 기억 속에 남아있는 소설의 느낌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었다.

현재 하동군의 대표적인 문화관광지로 각광받고 있는 이곳은 평사리 문학관, 농촌문화예술체험관, 전통문화 전시체험관, 읍내장터, 드라마 세트장 등을 갖추고 있으며, 하동 지역의 각종 축제와 연계한 문화체험 행사를 진행하고 있어 찾는 이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

하고 있다.

서울에서는 맛보지 못할 '참게가리장'이라는 하동의 이색음식으로 마련된 만찬을 끝으로 모든 일정을 마친 회원들은 눈과 입과 귀가 즐거운, 그리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여행의 여운을 품에 안은 채 귀경길에 올랐다.

이번 문학기행을 위해 여러 도움을 주신 박춘봉 회장님, 정문호 부회장님, 김석문 사장님, 최동현 대표님, 권선복 대표님께 감사를 드린다. **김민아**





평생을 대학과 함께 한 ‘살아있는 대학 역사’

대학 발전 위해서는 정부와 대학 소통이 우선

1966년 단국대 학장, 1967년 단국대 초대 총장 취임. 36세의 나이로 우리나라 대학 역사상 최연소 총장에 취임한 장충식 현 단국대 명예총장의 얘기다. 그렇게 그는 1947년 11월 선친인 범정 장형 선생에 의해 설립된 단국대를 대한민국 대표 사학으로 발전시키는 첫걸음을 내딛게 된다.

1993년까지 26년간 총장을 지냈고, 그 후로 재단 이사장을 역임하는 등 50년 가까운 세월을 대학과 함께해 온 장 명예총장은 우리나라 최초로 지방 캠퍼스 체제를 도입한 것은 물론 메인 캠퍼스의 탈서울 이전, 신캠퍼스 구축 등 대학 발전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

스포츠에 관심이 많았던 장 명예총장은 대학 스포츠에서도 스키, 쇼트트랙 등의 발전과 선수 육성에 힘을 쏟았다. 남북 체육회담 수석대표, 대한적십자사 총재를 역임하면서 1991년 해방 후 최초의 남북 단일팀(탁구, 청소년 축구) 구성, 2000년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성사시켜 민족화해와 남북 교류의 새 장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주변에서는 그를 두고 ‘어우름’의 폭이 넓은 사람이라고 평한다. 보수와 진보, 남과 북, 한국의 전통과 세계화·개방화를 아우를 수 있는 우리 사회에 몇 안되는 원로라는 것이 중론이다.

팔순을 넘긴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며 배우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특히 성악을 배우고 악기를 연주하고, 소설을 출간하는 등의 활동은 혈기왕성한 ‘청년 장충식’의 삶이 여전히 펄떡이고 있음을 증명한다.

겸손과 절제의 삶이 몸에 밴 그는 항상 공익(公益)이 사익(私益)에 우선해야 하며, 사학 운영자는 개인의 재산을 불리는 일과는 철저히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한다. 전 재산을 털어 범은장학재단을 설립한 뒤 무료 봉사하거나, 명예총장직에 대한 일체의 보수를 거부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우리나라 대학 발전뿐 아니라 남북관계, 대학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의 발전에 공헌해 온 장충식 명예총장을 만나 종합대학 승격과 한한(漢韓)대사전 발간 등의 영광 뒤에 숨겨진 고난과 역경, 그리고 대학 발전의 이면사를 들어봤다.

대담 · 장만기 인간개발연구원 회장 / 사진 · 오경근 원장

단국대가 개교 65주년을 맞았습니다. 1967년 36세의 나이로 총장에 취임하셨는데, 당시 각오가 남달랐을 것 같습니다.

1967년 3월 1일, 36세의 나이로 단국대 초대 총장에 취임했습니다. 당시 주간부는 폐교됐고, 재정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 후 대학 발전이라는 하나의 목표로 일생을 단국대와 함께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단국대는 발전을 거듭해 개교 65주년을 맞았습니다. 이제 단국대는 뿌리 깊은 나무가 되어 죽전과 천안 두 캠퍼스에 대학생들의 젊음과 활력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단국대 주간부가 폐교조치 되는 아픔도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 후로 종합대학 승격이라는 쾌거를 이루셨는데요.

단국대는 주간부와 야간부가 있었는데, 1961년 9월 군사정부가 '교육에 관한 임시특례법'을 공표하고 대학 정비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당시 군사정부 내에 단국대 출신들이 많아서 학교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는데, 같은 해 11월 발표된 대학 정비령 세부 조치에 주간부 폐교가 포함되었습니다. 기대가 물거품이 되고 만 거죠.

그런데 폐교조치의 사유가 주간부 교수가 규정에 비해 1명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교수 1명을 더 채용하라고 하면 되는데, 3천여 명이 재학하고 있는 대학을 하루아침에 문을 닫으라고 하니 기가 막혔죠. 이 일로 많은 학생들이 타 대학으로 전학을 갔고, 대학 이미지는 물론 재정적인 면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1966년 단국대 학장 취임 이후 종합대학 승격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전력을 다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박정희 前 대통령과 독대해 억울하게 주간부가 폐교된 과정을 설명했고, 결국 1967년 3월 종합대학으로 승격했습니다. 단국대 학장으로 취임한 후 약 70여 일 만의 일로 전국에서 25번째 종합대학이 된 겁니다.

1960년대의 대학 분위기나 환경이 지금과는 많이 달랐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1960년대는 대학생들의 데모 등 학생들의 소요가 지금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그래도 정부와 대학 간 소통의 관점에서는 당시가 더 소통이 잘 됐던 것 같아요. 최근 대학 사회에 반값등록금 문제가 이슈로 부상하고, 대학들이 감사를 받는 일이 많은데, 대학이 마치 불법집단 또는 등록금도 제대로 책정하지 못한다는 이미지가 굳어가는 점은 안타깝습니다. 지금까지 대학과 함께 해오면서 경험한 바로는 정부와 대학이 한 쪽의 입장만 고집해서는 안 되며, 서로 소통을 해야 대학 발전의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단국대는 국내 최초의 지방 캠퍼스 체제를 추진했는데요. 대학 발전의 새로운 모델로 평가받지만 결정은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새마을운동이 시작됐고, 박정희 前 대통령은 새마을운동을 대학 차원에서도 호응하고 동참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시 새마을운동의 진의를 이해하기보다 정략적으로 곡해하는 것이 지식인 사회의 풍토였기에 전면에 나서는 대학이 없었죠. 그때 단국대가 나서서 충남 청양군의 오지마을인 장곡마을과 자매결연을 맺고 새마을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고, 박 대통령은 이 같은 대학의 노력에 큰 관심과 호의를 보내주었습니다.

단국대의 새마을운동 시범 사례가 성공하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나서서 대학이 없는 지방의 중형 도시에 대학을 건설하자는 내부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 지방 개발에 앞장서는 대학이 돼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서울의 인구 증가를 줄이고 아울러 지역 인재를 육성하도록 대학 분교 건립을 건의한 겁니다.

이 제안을 받아들여 충남 지역에 대학을 설립하기로 결심하고, 대학을 세울 장소를 물색하던 끝에 천안시가 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1970년대 중반 당시 천안의 인구가 13만 명이었는데, 대학이 없어서 그 지역 학생들이 대부분 서울과 대전으로 유학을 가는 형편이었죠. 의료 시설도 개인병원 외에는 없을 정도로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천안은 경부고속도로 변에 있으면서 충청북도, 전라도, 경상도로 가는 길목에 위치한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그렇게 천안을 교육 도시로 발전시키는 일에 단국대가 큰 역할을 하겠다는 의욕을 가지고 분교 형태로 캠퍼스를 개설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천안캠퍼스를 설립하기 위한 부지매입 작업부터 쉬운 일은 없었지만 학내 구성원들은 물론 지역 구성원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치면서 합의



장충식 명예총장과 장만기 회장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점을 찾아갔습니다. 지방 캠퍼스를 만들 때에는 면밀한 조사와 검토, 그리고 구성원들의 지혜를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총장 개인의 열정이나 욕심으로 추진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렇게 주변의 도움과 협력으로 1978년 3월 천안캠퍼스가 개교하게 되었습니다. 초기에 농대를 설립했고, 충남에는 치과대학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양질의 치과 교육기관과 치과병원을 설립하기로 결심하고 1984년 9월 치과대 교사와 부속 치과병원을 개관해 구강보건이 취약한 농촌 지역 주민들에게 큰 도움을 주게 되었습니다.

대학 구조조정이 최근 화두입니다.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는 게 좋을까요.

1967년 처음 총장에 취임했을 때 우리나라 종합대학은 25개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학 수가 필요 이상으로 급증했어요. 과거 문민정부 시절 준칙주의에 의거해 대학 설립 허가가 남발됐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대학 설립 과정에서 준비 없이 추진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대학이 들어서려면 그 지역의 인구, 교통, 도로 등 주변 환경도 함께 고려돼야 하는 게 정석인데, 일부 대학은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 무리하게 설립된 경우도 있습니다. 대학 발전에 필요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모든 면에서 열악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죠. 대학들이 국내를 넘어 해외 대학들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러한 상당수 대학들은 자연스럽게 도태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학 발전을 위한 투자를 위해서는 대학의 수익 사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지나친 규제가 대학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지적도 있고요. 반값등록금도 재정이 있어야 가능한 것인데요.

대학의 가치는 자율성과 독립성입니다. 그런데 요즘 상황은 정반대로 가고 있어요. 대학이 너무 무기력합니다. 캠퍼스는 자본이 지배할 뿐이고, 정부의 갖은 규제로 독창성 있는 사학은 찾아보기 어렵게 됐습니다. 대학 발전을 위해서는 재정 확보가 급선무입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규제를 푸는 게 우선입니다.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경우 정부의 규제가 너무 많아요. 실제 단국대도 규제로 인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활용하지 못하다가 정부에 의해 수용된 적이 있습니다.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려면 재단에 수입이 생겨야 하는데, 대학 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대학들이 수익모델을 만들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도 필요합니다. 이 외에도 일부 명문대학에만 집중되는 기부금이 일반

대학에도 늘어나야 대학이 학생들에 대한 투자를 더 많이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동안 대학 스포츠 발전에 있어 남다른 애정을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요.

청년 시절부터 스포츠를 좋아했습니다. 서울대 재학 시절에는 럭비부 활동을 했죠. 럭비는 신사 스포츠입니다. 서로 몸을 부딪치는 과격한 운동이지만 상대방을 존중해야 하고 동시에 신뢰해야 하는 스포츠죠. 또한 팀워크가 없으면 승리할 수 없으니 개인보다는 전체를 생각하는 예의, 배려심이 저절로 생기는 운동입니다.

총장이 된 후로는 대학 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많은 분야에서 일했는데, 대학배드민턴협회 회장, 대학축구연맹 위원장, 대학농구연맹 위원장, 대학야구연맹 위원장, 대학육상연맹 위원장, 대학스키연맹 위원장, 대학태권도연맹 위원장 등 대학 스포츠 분야에 관여하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다양한 단체에서 활동했습니다. 이런 인연으로 대한체육회 이사 및 부회장, 대한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으로도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이 다양한 출신의 구성원들로 구성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국가로 결속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스포츠 때문입니다. 남북 간에도 스포츠를 통해 교류의 장을 넓혀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스포츠 분야는 정치인들이 주로 맡았는데, 대학교수 중심으로 스포츠를 장려해야 한다는 소신이 있었어요. 정치적인 부분을 배제해야 대학 스포츠가 제대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학 스포츠에 대한 투자가 없었다면 지금 박지성, 박태환 등 국민적인 스포츠 스타도 배출되기 어려웠을 겁니다.

남북 체육회담 대표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셨는데, 당시 이야기 좀 들려주시지요.

제가 처음으로 남북 체육회담에 참가한 것은 88서울올림픽 남북 단일팀 구성을 위한 회담이었습니다. 사마란치 IOC 위원장이 주재한 자리였는데, 북측의 무리한 요구로 회담이 결렬됐죠. 당시 북한은 올림픽을 개최할 의지보다는 동구권, 공산권 국가의 서울올림픽 참가를 막고 자신들도 불참할만한 외교적 명분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 후 1989년 90베이징아시안게임 남북 단일팀 구성을 위한 체육회담에 남측 수석대표로 참석했는데, 당시 회담에 관한 모든 재량권을 인정받고 회담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그 해 3월 9일부터 시작된 1차 회담에서 북측이 12가지, 남측이 10가지 의제를 제기했는데 양측이 제시한 안건도 대체적으로 비슷했어요. 의외로 합의가 원활히 이루어져 선수단 단기는 1920년대의 '아리랑'으로 하자는 제안을 북한이 수용했습니다.



◀1989년, 90베이징아시안게임 단일팀 구성을 위한 남북 체육회담

선수 선발도 기량이 우수한 선수를 뽑는다는 원칙에 의견 일치를 봤죠. 그런데 선수단 호칭에 있어서 남측은 '남북 단일팀'으로 할 것과 영문자 'KOREA' 표기를 제한한데 반해 북측은 '고려', 영문자로 'KORYO'로 할 것을 주장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 후 7개월 만에 3차 회담이 열렸는데, 회담이 지연될수록 목적 달성이 힘들어진다고 판단해서 북한이 제시한 흰색 바탕에 하늘색으로 우리나라 지도를 그려 넣은 단기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를 두고 '장충식 대표가 북한 의견을 너무 쉽게 받아들인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신념은 확고했습니다. 회담을 하는 이유는 선전, 선동이 아니라 관계 개선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어진 4차 회담에서는 북한이 고집하던 '고려'를 포기하고 우리가 주장한 '코리아'에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이어진 회담에서부터 이견이 나오기 시작했고, 결국 8차 회담부터는 종전 회담처럼 정치 공세가 시작되더니 북측에서 일방적으로 회담 결렬을 선언해왔어요. 그렇게 또 한 번 남북 체육회담은 좌절되었습니다. 이섭교 여운이 남는 회담이었지만 한편으로는 단일팀 명칭, 로마자 표기 방법, 단기 등을 합의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회담이었고, 이후 남북 단일팀 구성과 대회 출전에 그대로 적용되었다는 점에서 나름대로의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 회담은 해방 뒤 비정치 분야에서는 남북 간 합의로 이뤄진 최초의 회담이라는 점에서 국제적인 관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결국 그 후 탁구와 축구의 남북 단일팀이 구성되었는데요.

90베이징아시안게임이 끝날 무렵인 그 해 9월 29일 남한과 북한은 평양과 서울에서 '남북통일 축구경기'를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합의에 따라 10월 11일은 평양에서, 10월 23일은 서울에서 경기를 성공적으로 치렀습니다.

통일 축구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에 힘입어 같은 해 11월부터 '남북 스포

츠 교류 및 단일팀 구성, 참가를 위한 회담'이 1991년 2월까지 4차례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이미 베이징아시안게임 단일팀 구성, 통일 축구 등 2년간에 걸친 회담 덕분에 합의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결국 4차 회담에서 장장 8시간에 걸친 협의 끝에 '코리아 단일팀'이 탄생하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고성과 육설이 오가지 않고도 얼마든지 회담을 성사시킬 수 있다는 제 소신을 확인한 점도 고무적이지만 결론적으로 단일팀 성적도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1991년 4월 일본에서 열린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서 코리아팀은 여자 단체전에서 중국을 꺾고 세계를 제패했으며, 같은 해 6월 포르투갈에서 열린 세계청소년축구대회에서도 강력한 우승후보인 아르헨티나를 격파하고 8강에 진출하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체육계 활동과 대한적십자사 총재 활동 등을 통한 남북관계 교류에도 많은 기여를 하셨습니다. 최근 남북문제에 별다른 진전이 없는 데 어떤 해법이 있을까요.

최근 남북문제가 고착화되어 있는 것은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단기적인 관점에서만 접근하기 때문입니다. 북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돼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 양보하더라도 도와주는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북한과 우리는 같은 민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도와야 하는데 최근 남북문제에 있어서는 그런 생각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북한을 도발하거나 자극하면 우리에게도 이득이 될 게 없습니다. 지금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봐야 합니다.

제가 과거 남북 체육회담 수석대표, 대한적십자사 총재 등을 하면서 북한과 회담을 많이 해봤는데, 그 과정에서 느낀 것이 우리에게는 특수한 상대인 북한의 실체를 인정하고 대화를 통해 평화적인 방법으로 남북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지금처럼 대결의식으로 맞서



2000년 8월 대한적십자사 총재 취임식



대한적십자사 총재로 남북 교류에 기여한 장 명예총장

면 천안함 사건이나 연평도 포격 같은 비극적인 일이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난해 팔순을 맞아 펴낸 회고록을 보면 김영삼 前 대통령과의 악연 아닌 악연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199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YS 쪽에서 시간과 장소를 정한 뒤 만나는 제의가 왔는데, 거절한 적이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약속을 통보한 것도 유쾌한 일은 아니었지만 더 염려되는 것은 이때가 선거 국면에 돌입하던 시기였다는 겁니다.

김영삼 후보와 김대중 후보가 영호남으로 갈라서 대결하는데 YS를 만나면 오해를 부르는 건 뻔한 일입니다. 당시 저 또한 권력의 속성을 알 만큼 연륜이 있었어요. 대학을 생각해서도 총장으로서 어떤 대권 후보와도 만나지 말아야 하고,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학교의 발목을 잡는 일로 커지고 말았습니다. 단적인 예가 삼성그룹의 단국대 재단 인수 포기입니다. 당시 의대 부속병원 건립과 캠퍼스 이전 문제 등으로 재정 상황이 극도로 좋지 않았는데, 이때 손을 내민 곳이 삼성이었습니다.

이건희 회장과 가까웠던 엄삼탁 당시 안기부 기획조정실장을 통해 제 뜻을 삼성에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이수빈 당시 비서실장 등 삼성의 실무진들이 대학 재정 상황을 직접 조사도 하고, 이건희 회장과 독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당시 분위기로는 삼성의 학교 인수가 확정적이었는데, 이게 갑자기 무산된 겁니다. 이수빈 실장이 다급히 찾아와서는 '삼성이 단국대 재단을 운영하는 일은 없던 일로 하자'고 하더군요. 이유를 물었더니 '정치권에서 반대한다는 압력 아닌 압력이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누군지

말은 하지 않았지만 정권의 핵심에서 메시지가 왔을 것이고, 그 핵심은 김영삼 대통령이 아니고는 압력을 가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병원이나 의대와 관련해 교육부의 행정적 인가나 승인을 받을 일도 많았고 민원도 많았는데,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무리 없이 진행되던 일들이 김영삼 정부 출범과 동시에 '올 스톱'되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회고록에 의하면 노태우 前 대통령을 퇴임 후 단국대 총장으로 모시기로 했다는 내용이 있던데요.

삼성이 재단을 운영하고, 노태우 前 대통령이 총장에 취임하면 단국대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정치사에도 새로운 지평이 열릴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노 대통령에게 대학 총장으로 와서 정치를 통해 이루지 못한 이상을 교육을 통해 실현한다면 더욱 빛나는 길이 될 것이라며 총장으로 추대하겠다는 글을 보냈습니다.

그 뒤 김학준 대통령 공보수석의 주선으로 단독 오찬을 하게 됐죠. 그 자리에서 퇴임 후 우리 대학 총장으로 오십사 하고 권했고, 노 대통령도 그 제안을 기분 좋게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임기가 끝날 때까지 비밀로 하자고 해서 그러기로 약속까지 했는데, 이 역시 김영삼 정부가 출범하고 무슨 이유에선지 흐지부지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 추모 사업에 남다른 열정을 쏟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친께서는 생전에 독립운동가들의 가족을 돕는 일이 생기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거절하거나 피하지 말라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특히 백범 김구 선생님을 추모하는 일에 정성껏 봉사하고 공을 들이라고 하셨죠.

백범 선생이 한국 독립운동사와 현대사에 남긴 족적은 너무나 크고 위대합니다. 하지만 기념 사업은 그 위업에 비해 빈약한 게 사실이었습니다. 기념사업회는 늘 빚에 쪼들리고 셋방 신세를 면하지 못했죠. 1991년 기념사업회 회장에 취임하고 사단법인체로 조직을 개편했습니다. 그리고 기부금 내역을 명확히 정리하고 정부의 감독을 받으면서 점차 업무에 기틀이 잡히고 체계화되기 시작했죠. 사단법인에 대한 신뢰성도 높아져 기금도 늘어났고, 결국 모든 부채를 청산하고 단독 사무실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백범 사상을 보급하기 위한 ‘백범 강좌’를 한 달에 한 번씩 열어 임기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지속했습니다.

‘한한대사전’ 편찬이라는 역사적인 업적을 이루셨습니다.

총장에 취임한 후 다른 대학이 할 수 없는 일을 해야 한다는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 동양학연구소와 아랍문화연구소를 통한 특성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사학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방법이 문헌 수집과 분석인데, 우리나라에는 문헌 분석의 가장 기본 수단인 사전이 제대로 된 게 하나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중국사를 전공한 저로서는 한국인 스스로의 힘으로 제대로 된 한자 사전을 만드는 것이 학자로서 소망이자 한국학 발전에 단국대가 기여할 최적의 핵심 사업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런 생각은 고려대 대학원에서 석사 논문을 준비할 때부터 갖고 있었던 숙원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논문을 준비하면서 중국의 고문헌을 보다가 이해할 수 없는 글자나 어려운 단어를 만나면 이를 풀어갈 한국어로 만든 한자 전문 사전이 없어서 고충이 많았거든요. 그때마다 논문 지도교수였던 정재각 교수님을 찾아가서 물어보고는 했는데, 교수님도 ‘한한대사전’의 필요성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교수님께서 일본에서 만든 <대한화사전(大漢和辭典)>은 모로하시 데쓰지라는 사람이 중국 유학 중에 독자적으로 한자와 일본어 사전을 편찬기로 결심하고, 그의 아들 손자가 대를 이어 32년 만에 발간한 결과물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기필코 내 손으로 ‘한한대사전’을 만들겠다는 결심을 굳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동양학연구소를 중심으로 편찬 사업이 시작되어 이런저런 우여곡절, 돈과 권력의 우환거리를 피해 가며 마침내 1999년 4월 <한한대사전(漢漢大辭典)> 제1권이 출간되었습니다. 1권 발간 후 연차적으로 색인을 발간함으로써 마침내 2008년 10월 28일 세계 최대 규모의 <한한대사전> 전 16권을 완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편찬 사업이 시작된 지 31년 만에 동원 인원 22만 명, 예산 350억 원 이상이 투입된 대역사의 마침표를 찍은 겁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특별한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박 시장의 숨은 멘토 역할을 하신다고 하던데요.

1979년 박원순 시장이 단국대 사학과에 입학하면서 스승과 제자로 처음 만났습니다. 박 시장이 1975년 서울대에서 제명된 후 제 아들인 장호성 現 단국대 총장의 권유로 단국대에 지원하게 된 거죠.

당시 박 시장의 입학이 순탄치만은 않았어요. 유신체제 아래서 시국 사건 제적 학생은 어느 대학에서도 받아주지 않던 시절이었습니다. 당연히 정보기관에서 찾아와 박 시장을 입학사정 과정에서 떨어뜨리라고 압박했죠. 그러나 제 실력으로 합격할 수 있는 학생을 고의로 떨어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건 교육자로서 양심의 문제죠. 결국 정부의 말을 안 듣고 합격시켜 줬습니다. 물론 박 시장이 재학하는 동안 시위 등에 관여하지 않도록 지도하겠다는 ‘신원보증’을 했습니다. 박 시장도 저와 같은 약속을 하고 그것을 지켰고요.

박 시장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한 게 별로 없습니다. 다소 내성적인 성격이었지만 일그러진 우리 사회를 바로잡겠다는 정의감이 넘쳤죠. 다만 박 시장을 만날 때마다 “학생 때는 열심히 공부하고, 품고 있는 이상은 사회에 나가서 펼치라”는 조언을 자주 해줬습니다. 그리고 박 시장



은 공부에 매진하는 모범적인 학생으로 입학 후 곧바로 사법시험을 준비해 사회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람들을 돕는 인권변호사가 되겠다는 꿈을 키워 결국 사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서울시정을 이끄는 박원순 시장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겁니까.
공자가 사진 속에 있을 때는 추앙을 받지만 사진에서 나와 현실과 마주치면 그때 이미 공자가 아닙니다. 이상과 현실 사이의 냉엄한 차이를 직시해야 해요. 시장으로 일을 하다 보면 수많은 현실적 제약이 있을 겁니다. 과거 인권변호사로, 시민운동가로 활동하던 때처럼 이상만 꿈꾸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시정 경험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실제 경험이 풍부한 담당 공무원들과 전문가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조언이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과감하게 밀고 나가야죠. 박 시장은 서울시정을 서민 중심으로 펼치겠다고 밝혔고, 약속한 대로 시정을 펼쳐가고 있다고 봅니다. 취임 때의 초심으로 약속을 지켜간다면 성공한 시장으로 평가받을 겁니다.

‘만약’이라는 가정이지만 박원순 시장이 대통령을 꿈꾼다면 어떤 조언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박 시장처럼 공익적 가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인들은 대체로 선거 때는 그렇게 말하지만 막상 당선되고 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태도가 돌변하죠.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 대통령이라는 꿈을 꿀 수는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큰일을 해보겠다는 건 좋은 생각이죠. 박 시장이 서울시장 경험을 통해 역량을 쌓아간다면 자질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만약 박 시장이 그 문제에 대해 상의해 온다면 그 꿈을 응원해줄 생각입니다.

성악과 악기 연주를 배우는 등 인생 후반을 또 다른 영역에서 새롭게 개척하고 계시는데요. 배움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음악은 조화를 이루는데 있어서 가장 좋은 수단입니다. 스웨덴에 갔더니 국회 개원 전에 유명 오케스트라가 먼저 연주를 하고 시작하는 걸 봤어요. 오케스트라에 불협화음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정치도 화합을 우선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음악을 통해 인생 80세 이후를 살아가겠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지금 바이올린, 플루트, 피아노 등을 다시 배우고 있고, 성악도 발성법부터 차근차근 배워서 많이 발전한 상태입니다. 지휘공부도 하고 있는데, 국내 오케스트라는 물론 제 나이 90세에는 세계적인 오케스트라를 지휘해보는 게 목표입니다. 이를 통해 단국대를 세계에 알리는 것이 학

교를 위한 봉사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전적 소설을 쓰신 것으로도 화제가 됐었는데요. 소설의 마무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2003년 2월, 자전적 대하소설 〈그래도 강물은 흐른다〉를 출간한 이후로 5권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소설은 항일독립운동가의 후손으로 중국과 북한에서 일제 식민 통치를, 광복 이후에는 북한에서 공산 통치를 겪어낸 저와 제 가족사를 소설기법을 빌어 기록한 겁니다. 여기에 추가된 내용을 더해 개정합본판을 내고 11월 중에 출판기념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조찬세미나 개최 등 CEO의 학습문화 조성, 전국 지자체 및 기업, 공공기관 아카데미 교육으로 평생학습의 장을 마련해온 인간개발연구원에 대한 평가와 제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인간개발연구원과 같은 비영리단체들이 그 순수한 목적을 가지고 영속되기 위해서는 연구원의 뜻에 동참하고 아끼고 도와주는 후원자들을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발이 있어도 지속적으로 영양분을 공급해주지 않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 황무지가 됩니다. 더욱 기름진 옥토를 만들기 위해서는 영양분을 공급해줄 사람들이 필요해요. 저 역시 연구원의 후원자 중 한 사람이 되어 ‘인간개발’이라는 본연의 뜻을 펼쳐 나가는데 작은 힘이 되고 싶습니다. **김기현**

● 장충식 명예총장

1932년 중국 텐진(天津)에서 태어났다. 서울대 역사과를 수료하고 선친의 뜻에 따라 단국대 정치학과로 편입학해 졸업했으며, 고려대 사학 석사, 미국 브리검영대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1960년 단국대 교수, 1966년 단국대 학장 취임, 1967~1993년 단국대 총장, 1996~2004년 학교법인 단국대 이사장을 거쳐 2008년부터 명예총장으로 재임하고 있다. 남북 체육회담 수석대표, 제1차 남북 이산가족상봉 단장, 대한적십자사 총재, 백범김구선생 기념사업협회 회장, 범은장학재단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그간의 공로로 국민훈장 모란장, 대한민국 체육상, 대한적십자사 유공장금장, 체육훈장 청룡장, IOC 올림픽 훈장, 국제로터리 초아의 봉사상, 제20회 인간상록수 추대 등을 수상했다.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

우리나라는 1962년 경제개발을 시작한 지 50여 년 만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했다. 그 당시 1인당 국민소득이 70달러, 국가 예산의 50% 이상을 외국 원조에 의존하던 나라가 지금은 2만 달러를 넘고, 인구 5,000만의 20~50클럽에 가입하는 7번째 나라가 되었다.

지난 8월 전 세계 205개국이 참가한 지구촌 최대의 축제 런던올림픽에서 한국은 금메달 13개를 포함한 28개 메달로 종합 5위를 차지해 스포츠 강국임을 세계에 알렸다. 1948년 14회 런던올림픽에 처음 참가해서 동메달 2개를 따내 59개국 중 32위를 차지한 후 64년 만에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성장했다. 체력은 국력이라고 했다. 스포츠만큼이나 우리의 국력도 크게 신장되었다. K-Pop과 드라마가 주도하는 한류 바람이 일본과 아시아를 넘어 유럽과 지구 반대편 남미까지 불고 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뉴욕대 토마스 사전트 교수는 서울대에 부임하면서 한국을 선택한 이유로 “한국은 경제학자라면 꼭 한번 연구해 보고 싶은 나라”라고 하면서 “한국의 역사와 경제는 기적 그 자체”라고 했다. 한국의 변화를 놓고 세계는 경이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다. 안에서 바라보는 한국은 조그맣지만 밖에서 보는 한국은 크다. 오랜 세월 동안 중국의 위세에 눌려 살다가 일제 식민지 지배를 거친 뒤 나라가 분단되고, 북한의 도발로 6·25전쟁까지 겪었다.

더 이상 물리칠 수 없는 궁지에 내몰렸던 나라가 지금은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놀라운 에너지를 분출하면서 선진국의 문턱에까지 왔다. 고속성장, 압축성장을 하면서 앞만 보고 바쁘게 달려왔다. 좌, 우, 뒤를 돌아볼 겨를이 없었다.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에서는 부지런하면 누구나 잘 살 수 있었고, 대부분이 승자였기 때문에 패자를 돌볼 필요성이 적었다. 그러나 지금은 사회 곳곳에서 경쟁에 낙오된 사람, 경쟁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의 불평과 불만이 분출되기 시작했다. 고도성장의 후유증인 양극화의 그늘이 깊어가고 있다.

복지 개선과 경제민주화 등 시장경제의 단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회주의 붕괴 이후 시장만능주의는 부익부 빈익빈의 논리로 마침내 대부분의 국가들을 1% 대 99%로 양분시키고 있다. 99%의 분노가 시장경제 자체에 대한 공격으로 나아갈 경우 바로 1%가 가장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는 그의 저서 〈프로테스탄트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서 자본주의를 일으킨 개신교의 윤리적 근거로써 정직과 성실, 근면, 절약과 검소, 그리고 나눔과 배움을 들었다. 이러한 윤

리가 뒷받침되지 못하는 자본주의를 막스 베버는 천민자본주의라고 했다. 천민자본주의의 특징은 정경유착, 빈부격차, 그리고 도덕의 몰락 등이다.

이런 특징을 살펴보면 바로 한국 자본주의의 현주소를 보는 것 같다. 한국 경제와 기업이 극복해야 할 1차적 과제는 이런 천민자본주의의 특성에서 하루속히 벗어나는 것이다.

자본주의 발전과정에서 생기는 빈부격차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제3의 자본 중 하나가 노블레스 오블리주이다. 서양에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있다면 우리나라에도 전통적인 이웃사랑과 배움을 가훈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전통 명문가가 있었다. 조선 시대의 경주 최부자집, 공주의 김갑순, 그리고 해남 윤씨 가문 같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몸소 실천한 부자가 많았다.

돈은 벌기보다 쓰기가 더 어렵다는 옛말처럼 동서양을 막론하고 자기가 평생 모든 재산을 사회에 내놓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결정이다. 특히 유교문화의 영향으로 피붙이 의식이 강한 우리나라에서 재산을 자식에 물려주지 않고 사회에 환원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자본주의 역사가 일천한 우리나라는 요즘 들어와서야 우리 선조들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의식이 서서히 생겨나고 있다. 그동안 일제 강점기, 6·25전쟁, IMF 위기 같은 고난이 우리들에게 경제적 여유를 갖기 어렵게 만들었던 것도 사실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가진 사람들의 선도적 역할이다.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건강한 자본주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가진 사람들이 앞장서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해야 한다. 이들이 모범을 보일 때 사회적 연대감이 더욱 공고해진다.

한국은 이제 국제사회에서 보는 시각이 많이 달라졌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한국의 1인당 GDP가 2030년 5만 6천 달러로 일본을 제치고, 2050년에는 9만 8백 달러로 미국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미국의 골드만삭스는 “한국은 2050년 1인당 국민총생산(GDP)이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 사회에 날로 심화되어가는 양극화 문제를 갈등 없이 치유할 수 있는 대안인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하나의 문화로 정착될 때 비로소 진정한 선진사회로 거듭날 것이다. ■■■



정문호 부회장
mhc1228@hanmail.net



소통과 공감을 만들어 가는 ‘2012 소통아카데미’ 종강

대화와 소통기법, 인성함양을 위한 인문학 강좌에 1천여 명 수료

사회 구성원 간 활발한 소통과 공감을 만들기 위해 마련된 ‘2012 소통아카데미’가 3월 7일 1기를 시작으로 8개월의 대장정 끝에 지난 10월 24일 5기를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작년 시범 사업에 이어 총 15강좌가 개설된 2012 소통아카데미는 각 기수별 200명의 시민들이 참석해 뜨거운 열기 속에 종강식을 가졌다.

9월 5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된 4기에는 황수관 연세대 외래교수, 엄길청 경기대 교수, 최창호 알파브레인연구소장을 모시고 소통과 이해, 경제와 소통, 대인관계와 소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10월 10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 5기에는 오종남 서울대 주임교수, 정호승 시인, 홍광수 홍광수DISC연구소장이 강사로 참여해 소통하는 삶과 참행복론, 인생에 힘이 되어주는 시, 행동양식으로 알아보는 소통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송석구 대통령소속 사회통합위원회 위원장은 5기 수료식에 앞서 “2011년 시범 사업에 이어 2012년도 소통아카데미에

보여주신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린다”며, “소통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나와의 소통이 필요한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수료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사회에 소통 문화의 뿌리가 확실히 자리 잡았음을 느낄 수 있다”고 소감을 말했다. 덧붙여 “내년에 더욱 발전되고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보다 많은 분들이 아카데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장만기 본원 회장도 종강 인사말을 통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갈등문제를 봉합하고 사회통합이라는 국가 과제를 풀어 가는데 있어 소통아카데미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대화합의 문화를 형성해가는 작업에 인간개발연구원이 동참할 수 있어 보람을 느끼고 있으며, 보다 나은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사회통합위원회와 상호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소통과 대화에 필요한 기본 인성을 함양해 사회통합의 든든한 토대를 마련하고, 우리 사회에 소통과 공감의 문화를 확산하고자 마련된 소통아카데미는 사회통합위원회가 주최하고, 인간개발연구원이 주관했으며, 한국방송통신대학교(총장 조남철)가 후원해 방송대학TV OUN 채널을 통해 전국으로 방영되었다.

특히 올해는 전국 16개 시·도로 확대 운영되었으며, 시민들의 교양습득은 물론 우리 사회의 소통 문화 확산에 기여한다는 긍정적인 평가 속에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한편 아카데미에 참석하는 시민들은 기수별 1만 원의 참가비를 납부했으며, 이 금액은 전액 사회단체(4기 굿네이버스, 5기 유니세프)에 전달되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용하기로 해 아카데미의 근본 취지를 살렸다는 평가다.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종강식을 마친 2012 소통아카데미 4~5기 강연의 주요 발언을 발췌해 소개한다.



황수관 박사의 신바람 소통법

2012 소통아카데미 4기 1회차 9월 5일(수) / 황수관 연세대 외래교수



‘5-3=2, 2+2=4’, ‘어떤 오해도 세 번만 생각하면 이해가 생기고, 이해를 두 번만 해주면 사랑이 생긴다’는 말이다. 이 법칙에서 우리는 소통을 찾을 수 있다. 소통은 반드시 만남으로부터 이루어진다. 인생에서 가장 첫 만남은 가족과의 만남으로 남편과 아내, 부모와의 만남이다. 특히 부모의 말 한 마디가 자식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다. 나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다. 그런데 우리 아버님은 자식들을 자주 안아주셨다. 아직도 그 따뜻한 품을 잊을 수 없다. 그것이 소통의 지름길이다. 아버지가 자식을 안아주는 것은 엄마가 안아주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그런데 아버지보다 더 큰 사랑을 보여주는 분이 어머니다. 나는 일본에서 태어났는데, 어머니가 나를 임신하고 9개월이 됐을 때 어느 날 아침 미군의 폭격이 있었다. 그 때 아버님은 식사하다 말고 혼자 도망을 갔지만 어머니는 나를 임신한 만삭의 몸으로 큰 누나와 둘째 누나를 끌어안고 꼼짝도 하지 않으

셨다. 위급한 상황이 벌어지면 어머니는 자기 몸보다 자식이 먼저 보인다. 그래서 어머니는 위대하다는 것이다.

수없이 많은 만남 중에서 아내와 남편의 만남이야말로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만남일 것이다. 남편은 머리, 아내는 심장에 비유할 수 있다. 심장과 머리가 소통이 잘 돼야 한다. 그런데 남편과 부인이 소통이 안 되는 집이 많다. 그런 집은 죽은 집이다. 심장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뛰기 시작해 잠시도 쉬지 않고 수축과 이완을 반복한다. 몸은 잠을 자도 심장은 잠

들지 않는다. 그래서 부인이 죽으면 그 가족은 사망하는 것과도 같다.

머리, 뇌도 중요하다. 심장은 이식이 가능하지만 뇌는 이식이 안 된다. 옛날에는 심장에 마음이 있다고 했는데 현대의학은 뇌에 마음이 있다고 했다. 그런데 이게 다시 돌아왔다. 농사꾼이 소설가의 심장을 이식받았더니 소설을 쓰게 되었다고 한다. 자기 부인을 사랑하고 부부간에 소통을 잘해서, 또 부모 자식간에 소통을 잘해서 가정부터 소통이 돼야만 이웃이 소통이 되고, 이 사회가 소통이 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소통이 된다는 것을 믿는다.

소통을 통해서 모든 분야의 갈등과 분열이 사라지고, 이해와 사랑이 강물처럼 흘렀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는데 우리 모두 힘을 모으길 바란다.



소통으로 풀어나가는 부자의 자기경영학

2012 소통아카데미 4기 2회차 9월 12일(수) / 엄길청 경기대 교수



우리 사회에서 1946~1965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부머 세대들은 가난한 시대에 태어나 부모의 사랑은 듬뿍 받았겠지만 물려받은 재산이 거의 없다. 그 중 18% 정도는 고등교육까지 받았지만 나머지는 공부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렇게 우리 사회의 기업이나 공공현장, 또는 자영업으로 열심히 살았는데, 이들 세대의 문제는 자녀 교육비 대느라 자신들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 저수익 경제의 장수 사회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것이다.

사회적으로 눈여겨 볼 것은 학력이 높을수록 장기불황에서 재취업이 어렵다는 것이다. 일본은 20년의 장기불황을 겪고 있는데, 대학을 나온 60세 이상의 노인들은 거의 수입이 없다. 고졸 출신자들은 정년 후 잠시 쉬는 시기가 있었지만 대체로 정상 복구되었다. 무엇이든 하기 때문이다. 반면 중졸 이하의 학력자 중 65세 이상의 노인들은 하던 일을 계속 하기 때문에 오히려 가치가 올라가 명인, 도사, 장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한국 사회는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할까? 결국 우리 모두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을 관리해야 한다. 미래는 민주주의도 사회주의도 아닌 재능주의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 요즘은 우수한 사람이 아니라 우월한 사람을 찾는다. 우월한 사람은 DNA가 다르다.

사회가 선진국이 될수록 일터는 내가 사는 집과 가까울수록 좋다. 이때는 동네사람들과 소통하려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는 동네, 마을로부터 힘을 얻어야 한다. 또 여러분의 형제동기간, 자녀, 부모로부터 힘을 얻어야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된다.

여러분이 가진 재능을 발휘하는 곳이 직장이다. 모든 곳의 중심에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기고용정신'이다. 사람들은 손수 하는 일에 애정을 갖는다. 여러분이 무엇인가 손수 한다면 아름다운 작업이 되고 작품이 된다. 여럿이 만들면 제품이고, 혼자 만들면 작품이다. 여러 명이 하면 기술이지만 혼자 하면 예술이 된다.

나도 벌지만 남도 벌어야 한다. 세상은 지속가능해야 하고 이윤은 적정해야 한다. 이것이 경제적 사회 소통의 최대 화두라고 할 수 있다. 혼자 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하더라도 누군가와 같이 할 수는 없는지 둘러보면서 남의 기회를 뺏지 않아야 한다. 앞으로는 근거리 교통망이 발달해 워킹시티가 되는 배회 경제로 변할 것이다. 우리가 흔히 독점적인 것을 막으려는 이유는 이윤을 많이 가져가고 공급을 멈출까봐 그러는 것인데, 대를 잇는 가게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나는 대한민국 의 이 정의로운 전통을 믿는다.



무엇이 사람을 움직이는가? - 마음을 움직이는 77가지 키워드

2012 소통아카데미 4기 3회차 9월 19일(수) / 최창호 알파브레인연구소 소장



누군가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을 커뮤니케이션 또는 소통이라고 한다. 커뮤니케이션의 언어적 부분은 30% 밖에 되지 않는다. 나머지 70%는 비언어적이다. 몸짓, 말투, 강약, 고저, 중간에 재미있는 말과 섞어서 하는 비언어적인 부분이 강하다.

소통을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줘야 한다. 그래야 상대방도 나에게 긍정의 에너지를 돌려주게 된다. 긍정의 에너지를 주면 마음이 열리고 방어기제가 풀리게 된다. 소통이 안 되는 사람들은 심리학 용어로 '내적통제자'들이다. 본인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소통이 잘 안 된다.

사람을 움직이는 방법 중 무의식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인간과 같은 동물은 비합리적이고 감성적이고 감정적이며 비이성적인 존재이다. 그것을 합리적으로 대화하려고 하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것이다. 가슴 아픈 사람에게 머리로 이해시키려고 하고, 논리로 풀려고 하면 되지 않는다. 가슴이 아픈 사람은

가슴으로 다가가야 하고, 머리가 아픈 사람은 머리로 다가가야 한다.

사람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암시다. 암시는 자기암시, 타자암시, 사회적 암시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자기암시는 스스로에게 '나는 된다',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플라시보 효과와 끌어당김의 법칙이 자기암시의 예이다. 타자암시는 상대방을 위해 기원하고 기도하는 것이다. 다른 누군가를 위해 기원해주면 에너지가 모여서 큰 힘이 된다. 올림픽이나 월드컵 때 사람들이 엄청난 응원을 해주면 선수들에게 플러스 힘이 발생된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때 가장 효과적인 것은 체험을 시켜주는 것이다. 펄떡이는 물고기처럼 생동감 넘치는 사람을 보거나 경험해보면 우울해지거나 좌절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또 하나의 비결은 잘 들어주는 것이다. 말은 잘하는 것보다 잘 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항상 습관적으로 상대방에게 먼저 긍정해주고 문제점을 지적하면 이야기가 좀 더 수월해질 수 있다.

소통을 위한 여러 방법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존중해주는 마음과 역지사지하는 마음이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 설득하기보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여유만 가져도 소통의 달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1세기 삶의 방식 - 참행복론

2012 소통아카데미 5기 1회차 10월 10일(수) / 오종남 서울대 과학기술혁신과정 주임교수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1960년대 52세에서 2010년에는 81세로 30세 가까이 늘었다. 앞으로는 100세까지도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장수가 축복일까? 환갑을 지나 나머지 인생을 살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장수는 재앙일 뿐이다.

대체출산율이 2명 이하로 떨어지면서 요즘 부모들은 자식 대하기를 왕처럼 대한다. 그러나 이 아이들이 노인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 시점이 되면 한 사람이 세대 전체를 뒷바라지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데도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헌신하는 경향이 강하다. 우리 부모가 우리에게 그렇게 했기 때문이다.

진정한 자식사랑이란 우리 부모가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희생해서 해준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늙어서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 것이다. 늙어서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는 것이 진정한 자식사랑이다. 자식들에게 올인하지 말고 나머지 절반은 자신의 노후준비를 해야 장수가 축복일 수 있는 기본 조건을 갖출 수 있다.

행복에 이르는 두 가지 길은 더 많이 성취하거나 더 적게 바라는 것이다. 더 적게 바라는 것이 어렵다면 바라는 것의 관리



를 잘 하는 것도 방법이다. 내 가족과 자식에게 기대수준을 낮추면 낮출수록 똑같은 기준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

행복에 이르는 비결은 남과 비교하고, 나만 어렵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나보다 힘든 사람도 많다는 것을 비교해서 알고, 사람들에게 나눔을 실천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

나눔이란 배려다. 짝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염려하는 마음이다. 배려란 내가 상대하고 있는 짝에 대해서 염려하는 마음이다. 그것이 나눔이다. 물질적인 것만이 나눔이 아니다. 어떤 면에서든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에게 마음으로 따뜻하게 대하고,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하는 것이 나눔이다.

퇴계선생은 소통을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라고 했다. 주변을 둘러 보고 나보다 못한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 사회의 총체적인 경쟁력이 높아지고, 그 결과로 3만 불, 4만 불 시

대를 열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죽기 살기로 경쟁해서 이기고자 하는 경쟁의식이 아니다. 나도 잘 살아야 하지만 나의 이웃도 함께 잘 살아야한다는 정신이 다시 회복될 때 이 사회의 진정한 의미의 경쟁력이 생기고, 선진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내 인생에 힘이 되어주는 詩

2012 소통아카데미 5기 2회차 10월 17일(수) / 정호승 시인



시는 삶과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시는 영혼의 양식이다. 사람마다 영혼의 양식이 다르지만 그 중 하나가 시다. 시는 우리 삶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다. 시는 인간을 이해하게 해준다. 인간을 이해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지금까지 살면서 나 자신을 이해하는 것조차도 너무나 어렵다.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데 남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들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난다.

시는 어떤 의미에서 나 자신의 삶을 이해하기보다는 성찰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시는 언어의 궁극적인 아름다움을 깨닫게 해주는 역할도 한다. 시의 역할 중 우리의 삶에 큰 힘과 위안이 되어주는 역할은 무엇보다 더 소중한 것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소통도 중요하지만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소통이 중요하다. 자기를 들여다 볼 수 있는 길이 없을까? 성철스님은 우리들에게 “자기

를 바로 봅시다. 자기를 바로 보지 못하면 그 바로 보지 못하는 것에서 갈등의 씨앗, 분노의 씨앗이 싹틔웁니다”라고 하셨다.

내 시 중에 ‘풍경 달다’라는 시가 있다.

운주사 와불님을 뵈고 / 돌아오는 길에 / 그대 가슴의 처마 끝에 / 풍경을 달고 돌아왔다
먼데서 바람 불어와 / 풍경 소리 들리면 / 보고 싶은 내 마음이 / 찾아간 줄 알아라

마음에 전해질 것이다. 시는 설명하는 것이 아니다. 시는 침묵으로 이루어진다. 침묵이 시의 가장 큰 배경이다. 20년 전 한 스님의 부탁으로 어느 산사에 풍경을 달게 되었다. 풍경을 달고 바람이 불어오자 바람소리가 풍경소리로 바뀌었다. 그 풍경소리가 얼마나 좋은지 의성어로는 표현할 수가 없었다.

풍경은 누구 때문에 자기 존재의 소리를 내는 걸까? 바람 때문에 소리를 내는 것이다. 또 바람은 풍경 때문에 자기 존재의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이다. 풍경과 바람의 관계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이다.

풍경이 없으면 바람은 존재하기 어렵다. 바람이 없으면 풍경이 존재하기 어렵다. 당신이 없으면 나도 없을 수 있다. 내가 있기 때문에 당신이 존재한다. 우리는 풍경과 바람과의 관계에서 다시 한 번 소통의 관계를 생각할 수 있다.



소통으로 행복한 인간관계 만들기

2012 소통아카데미 5기 3회차 10월 24일(수) / 홍광수 홍광수DISC연구소 소장



세상 살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인간관계이다. 일은 오랜 시간 열심히 하면 장인이 될 수 있지만 인간관계는 평생을 살면서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다. 그래서 소통이 잘 안 된다.

우뇌가 발달한 사람은 세상을 넓게 보는 대신 주위가 산만해 어떤 일을 끝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일의 속도가 빠르고 융통성이 좋고 통합적 사고를 한다. 좌뇌가 발달한 사람은 집중력이 좋고, 한 가지 일을 꾸준히 한다. 그러나 일의 속도가 느리고 융통성이 부족하고 분석적 사고를 한다.

우뇌형을 외향성이라고 하는데, 사람을 좋아하고 속도보다 겉모습에 치중한다. 좌뇌형은 내향성인데, 자신을 중요시하고 겉모습보다 속을 중요시한다. 이런 전제로 모든 사람을 일과 사람관계 측면에서 이해하면 쉽게 소통할 수 있다. 그것이 DISC 이론이다.

D형은 외향성으로 일을 적극적으로 하는 주도형이다. D형이 성공하면 사장, 감독, 장군 등 파워풀한 리더가 된다. D형의 핵심가치는 일, 결과, 포상, 명예, 권력, 통솔력이다. D형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일 이야기를 주로 하되 짧게 하고, 칭찬을 많이 해줘야 한다.

I형은 외향성으로 대인관계를 잘하는 사교형이다. 턱선이 가름하고 오목한 코, 빛나는 눈빛, 머리가 작은 사람들이다. 연예인, 외교관, 예술가, 모델 등이 I형이다. I형의 핵심가치는 친구, 놀이, 여행, 수다, 새 것 등이다. I형을 대할 때는 자기를 표현해주는 부분에 관심을 가져줘야 소통의 문이 열린다.

S형은 내향성으로 남을 따라 가는 안정형이다. 통통한 얼굴, 낮은 코, 두꺼운 입술, 처진 눈, 착하게 생긴 눈빛을 가지고 있다. 변함없고 부드럽고 성실한 타입으로 반기문 총장, 황희정승 등이 S형의 모델이다. S형의 핵심가치는 안정, 체제, 단순, 반복, 음식, 잠, 쉼, 강자를 좋아함 등이다. 그래서 S형은 D형을 좋아한다.

C형은 내향성으로 일을 꼼꼼하게 하는 신중형이다. 하얀 피부, 가운데로 몰린 이목구비, 작은 입, 차분한 눈빛을 가진 사람들이다. 의사, 약사, 변호사 등 전문가들이 C형이다. C형의 핵심가치는 완벽함, 분명한 과정, 진실함, 도덕성, 논리성, 분명한 자료 등이다. 그래서 C형과는 자료가 분명하고 육하원칙에 의한 논리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이 소통법이다. 특히 C형은 매일매일 감사일기를 쓰고, 대인관계 속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사랑과 감사로 포장된 문장을 통해 대화를 나누는 노력을 해야 다른 사람들과 소통을 잘 할 수 있다. KIM



글로벌 불황대비 특별교육 영업마케팅 능력향상 과정

글로벌 불황의 시대, 기업의 영업 전략을 어떻게 세우는 것이 좋을까? 기업의 성과 극대화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도 영업마케팅에 관한 전략적 사고가 없다면 모든 게 물거품이 되고 만다. 설령 있다 하더라도 영업마케팅 담당자의 자세가 회사와 제품보다 앞서는 고객신뢰의 바탕이 될 수 있는 만큼 고객 접점에서 마케팅을 담당하는 직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본원에서는 글로벌 불황기를 대비하고 기업을 대표하는 최강의 영업마케팅 직원을 육성해 직원과 회사가 함께 성장하는 발전모델을 제시하고자 '영업마케팅 능력향상 과정'을 개설했다. 이 프로그램은 고객관계관리(CRM)를 통한 고객자산 창출, 효율적인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의 고객 상담 능력 함양, 이견도출에서의 효과적 협상대안 개발을 통한 협상능력 제고, 고객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통해 고객만족경영에 기여하는 전문 인력 양성, 창의적 영업과 마케팅의 시사점 도출이 가능한 인재 양성을 목표로 지난 10월 8일~10일까지 3일에 걸쳐 진행되었다.

영업과 마케팅 융합논문으로 유명한 본원 김덕희 상임이사가 과정을 주재한 가운데 총 19명의 교육생이 참가해 강의와 함께 열린 토론과 발표를 병행해 실질적인 교육 효과를 거두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불황극복, 영업마케팅 담당자 역량 중요

교육 첫날, 다소 서먹한 분위기였지만 서로 인사를 나누는 가운데, 김덕희 이사사의 자기소개로 강의가 시작되었다. 여러 기업, 다양한 직업군에서 교육생들이 참여했는데, 그 중 김봉동 안국약품(주) 지점장은 교육 참가를 위해 대구에서 첫차를 타고 올라오는 열의를 보여줘 다른 교육생들을 놀라게 했다.

오전 시간에는 신규고객 발굴과 고객관계관리, 감성세일즈에 대한 이론 중심의 강의를 진행되었다. 그리고 오후에는 개개인의 기업별로 SWOT 분석을 한 후 발표하고, 김덕희 이사가 피드백을 주고 함께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생들은 이미 각 기업의 대표자로서 기업의 SWOT 분석과 영업 전략을 조리고 열의 있게 발표해 서로 의견을 나누었으며, 김 이사는 강의 중간 중간에 실전적인 조언과 컨설팅을 끊임없이 들려줘 교육생들의 욕구를 만족시켜 주었다.

2일차에는 고객 상담기법을 중점으로 강의가 진행되었다. 오전에는 가망고객을 사로잡는 감성적 고객 상담기법, 수용하는 고객의 대처 전략, 무관심 극복 스킬, 기각고객 응대 스킬에 대한 이론에 대한 강의가 이어졌고, 오후에는 교육생들이 직원과 고객으로 나뉘어 직접 상담기법을 적용해보는 실습시간을 가졌다. 교육생들의 역량과 김 이사의 교육 노하우가 더해진 상담실습 시간은 무척 진지했다.

3일차는 협상기법을 중점으로 강의가 진행되었다. 오전에는 전략적 영업협상의 이해와 전략적 영업협상의 기본적 유형, 협상의 장애요인들, 전략적 협상의 평가 방법, 정보 파악과 다양한 상황대응력 개발 등의 이론 강의를 진행되었고, 오후에는 조별로 나누어 직원과 고객, 그리고 읍저버로 나누어 각각 주어진 상황에 대한 협상 실습을 진행하였다. 직원과 고객 각각의 이익은 다르기 때문에 협상을 통해 서로 Win-Win 하기 위한 열성적인 협상 모습이 연출되었다.

사례 위주와 실습으로 교육 호응도 높여

10일, 3일차 강의를 모두 마치고 수료식이 진행되었다. 마지막 시간까지 불참 없이 19명 모든 교육생이 수료했다는 점에서도 교육성과를 읽을 수 있었다. 이 화우 (주)세화아이엠씨 전무는 “교육을 받기 전에는 나처럼 나이 많은 사람이 교육을 제대로 받고 소화할 수 있을까 고민도 많이 했지만 교육을 받고 보니 정말 유익한 교육이었다”면서 소감을 전했다. 김인환 GS지식산업센터 부장은 “각각의 업체별로 맞춤형 조언을 해준 것과 사례 위주의 교육 및 실습 시간을 줘서 좋았다”는 소감을 전했다.

이렇게 영업마케팅 능력향상 과정이 성황리에 수료를 마쳤으며, 수료생들은 교육 내용을 실전에 활용하고, 그 정보들을 공유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별도 모임을 만들고 지속적인 만남을 갖기로 했다.

한편 본원은 향후 이와 같은 다양한 직군, 직능, 직급별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보급하고 전개해나갈 예정이다. 참여해주신 교육생들에게 감사드린다. **GS지식산업센터**



- 1 1일차 발표
- 2 2일차 상담
- 3 3일차 협상
- 4 수료식 기념촬영



[회원 소식]

- **미래에셋생명(대표이사 수석부회장 최현만)** 역삼은퇴설계센터는 지난 9월 4일부터 점심시간을 이용한 런치타임강좌 'Funch'를 개설해 직장인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11월까지 매주 화요일 12시부터 50분 동안 진행되는 본 강좌



는 조성환 미래에셋생명 퇴직연금지원본부장의 '프레임'을 바꿔야 자산관리 성공한다'는 강의를 시작으로 김동엽 미래에셋 은퇴교육센터 본부장, 이명수 미래에셋생명 부동산 전문 컨설턴트, 이호원 미래에셋생명 VIP 컨설팅 팀장 등 미래에셋생명의 전문가들이 직장인들의 자산관리 전략, 부동산 전략에 대해 직접 강연을 펼치고 있다. 강좌는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 참석자들에게는 간단한 식사와 강사들의 저서가 무료로 제공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역삼은퇴설계센터(02-556-8866)로 문의하면 된다.

- **한국종합건축사사무소(회장 전상백)**는 지난 9월 13일 창립 33주년을 맞아 회사 관계사 및 고객사 600여 곳을 초청한 가운데 역삼동 GS타워 아모리스홀에서 창립기념 행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전상백 회장은 산수집 출간 기념회를 함께 열어 회사 창립에 더해 전상백 회장의 기업경영 철학 등을 소개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 **정태익 단국대 한국영토연구소 연구소장 겸 석좌교수**는 지난 9월 13일 단국대 죽전 캠퍼스에서 독도 문제와 관련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독도를 비롯한 영토문제의 중요성을 인식, 우리나라 영토문제 전반에 대한 연구를 목적으로 지난 6월 발족한 한국영토연구소 개소 기념으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최근 독도를 둘러싼 일본과의 영토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영토문제에 대한 국제적 동향을 검토하고 우리나라에 주는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 '영토문제의 국제적 이해와 한국의 대응'을 주제로 학계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 **(주)다비윅중(사장 윤희진)**은 지난 9월 17일 본사 대회의실에서 프로골퍼 김대섭(31, 아리지 골프클럽) 선수와 프로 후원 계약식을 가졌다. 본 후원계약에 따라 김대섭 선수는 다비윅중에서 생산하는 최고급 돈

육 브랜드 '웰팜포크'의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된다. 식육 업계 최초로 프로골퍼를 홍보대사로 위촉한 웰팜포크는 앞으로 최고급 돈육 이미지에 맞는 차별화된 스포츠 마케팅을 펼칠 예정이다.



- **한국파매회장 박재돈**은 창립 38주년을 맞아 9월 22일 천안 상록리조트 대운동장에서 전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기념식 및 한마음체육대회를 개최했다. 뿐만 아니라 이날 행사를 통해 큰 업무성과를 보여준 모범사원 5명을 표창하고, 부상으로 금일봉을 시상했다.



- **재능교육(대표이사 양병무)**이 후원하는 '제22회 전국시낭송경연' 인천대회가 지난 9월 22일 인천여성문화회관에서 열렸다. 전국시낭송경연대회는 시를 사랑하는 시낭송애호가들의 높은 관심 속에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전국 16개 시·도에서 예선대회가 진행되었으며, 각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수상자들은 11월 서울 본선대회에 참가하게 된다. 한편, 재능교육은 시낭송대회 지원과 더불어 대외적인 시낭송 보급운동을 활발히 전개해 오고 있으며, 사내 임직원과 학습지 교사인 재능스스로선생님들의 정서 함양에도 시낭송을 꾸준히 활용할 계획이다.



- **서양화가 장영주 화백**은 9월 26일부터 10월 9일까지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본관에서 작품전을 열었다. 지난 3월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신작전을 열기도 했던 장영주 화백은 이번 전시에서 100호 크기의 대작을 중심으로 추상 표현주의 작품 30여 점을 발표했다.



- **알앤엘바이오(회장 라정찬)**는 9월 12일부터 14일까지 아시아 최대 규모의 제약 바이오 컨벤션인 '바이오 코리아'에 참가했다. 알앤엘바이오는 본 행사를 통해 일반인들이 좀 더 쉽게 줄기세포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전시장을 구성하였으며, 13일에는 라정찬 박사의 강연과 함께 자가지방출기세포 치료제인 '조인트스텝'의 퇴행성관절염 치료 효능을 발표해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 **정이안 정이안한의원 원장**은 9월 23일부터 매주 일요일 밤(23:30~23:45)에 방송되는 교통방송 TBS FM '이상우의 마이웨이'의 '정이안의 건강 이야기' 코너에 고정게스트로 출연하고 있다.



- **한화케미칼대표이사 부회장 홍기준**이 후원하는 '제7회 전국 장애인도예공모전' 시상식이 9월 25일, 전국은행회관에서 열렸다. 회사 측은 "이번 공모전이 장애를 뛰어넘는 창의성을 발휘해 예술적 감성을 개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상식과 더불어 회사 앞마당에서 한화케미칼 임직원들은 직접 모은 기증품으로 바자회를 열었으며 수익금 전액은 한국재활재단에 기부했다. 한편 이번 도예공모전에서 선정된 53점의 수상작은 한화빌딩 인근의 한빛미디어 갤러리에서 10월 4일까지 전시됐다.



- **기업은행행장 조준희-롯데호텔(대표이사 송용덕)**은 9월 2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100억 원 규모의 동반성장펀드 조성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롯데호텔 중소협력업체들은 기업은행과 롯데호텔이 각각 50억 원씩 출연한 펀드를 통해 저금리의 실질적인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자동감면 1.8%와 신용도 및 거래실적에 따른 추가감면 1.50%를 받아 최대 3.30%의 우대금리를 적용받게 되었다.



- **인천공항공사사장 이채욱**은 10월 1일 영국 UBM 에비에이션이 개최한 2012 세계루트회의 항공마케팅 시상식에서 '아시아지역 항공마케팅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영국 맨체스터 소재의 UBM 에비에이션은 2006년 설립 후 매년 대륙별로 항공 마케팅 분야에서 뛰어난 실적과 혁신을 이룬 공장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



으며, 인천공항은 올해 영국항공의 유치, 여객 및 환승객의 역대 최대치 기록 등과 같은 마케팅 실적을 인정받아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 **한국마사회(회장 장태평)**는 10월 5일부터 14일까지 서울 경마공원 에서 '2012 가을향기 축제'를 개최했다. '馬음속 사랑 Autumn Love Festival'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축제에서는 다양한 이벤트와 볼거리가 마련돼 가을의 정취를 즐기기 위해 나들이에 나선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 **갤러리 에쁘꼬(대표 김희정)**는 틀에 맞춰진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무심코 지나가는 주변 풍경의 소중함을 제안하는 '풍경담기' 전을 10월 10일부터 11월 6일까지 개최하고 있다. 이번 전시는 익숙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 사소한 일상의 모습의 소중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며 한윤정, 정영주, 이미경 작가 등이 참여했다.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총장 조남철)**는 서울 종로구 방송대 대학로 본관에서 개교 40주년 기념 국제학술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학술포럼은 '지식네트워크 사회를 위한 원격개방교육의 발전과 전망'을 주제로 한중일 개방대학(OU) 총장과 아시아 및 유럽지역의 원격교육 관계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로 마련되었으며, 존 다니엘 전 COL 회장(전 영국OU 부총장) 등 아시아·유럽 원격교육의 권위자 60여 명이 참석했다. 한편 방송대는 10월 10일 대학 본관 광장에서 '100세 시대 평생교육 허브대학 선포식'을 가졌다.



- **이상춘 (주)에스씨엘 회장은** 우리나라 최초의 계획기부 모델인 기부자조연구금에 1호로 가입,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억 원을 기부했다. 이상춘 회장은 기부자조연구금 가입과 동시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고액기부자 모임인 아너소사이어티 150호 회원으로도 가입했다.



■ **광주요(회장 조태권)**는 10월 12일부터 21일까지 경기도 이천시에 위치한 광주요 이천센터점에서 '2012 광주요 명품 도자축제'를 개최했다. 이번 도자축제에서는 전통도자를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체험 이벤트뿐만 아니라 관람객을 대상으로 한 담금주 만들기, 화요 카테일 시음, 다도 체험 등 다채로운 행사들이 진행되었다. 한편 축제기간 중에는 광주요의 클래식 라인을 최대 60%까지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파격할인 이벤트가 마련되었으며, 균일가전과 함께 한 바구니 당 1만 원에 판매하는 '만원의 행복' 행사도 진행해 관람객들의 호응을 얻었다.



■ **리사이트(대표이사 이종원)**는 10월 17일 '강남역 신분당선 갤러리 G-아르체'에서 가을맞이 무료공연 '청아 청아 내 딸 청아'를 개최했다. 이번 무료공연은 '2012 찾아가는 중소기업 무료공연'으로 기획되었으며, 남녀노소 모두에게 재미있고 뜻깊은 마당극잔치로 열려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 **광동제약(회장 최수부)**은 수능을 앞두고 수험생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했다. 광동제약은 '비타500 고3 수험생 고득점 응원' 이벤트를 통해 사연을 응모 받아 선정된 대상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의 고3 수험생 전원에게 비타500 1병씩을 제공했으며, 서울지역 고3 학생 2만 5,000여 명을 대상으로 '틴플플래너'를 배포했다. '틴플플래너'는 수험생들이 남은 날짜를 체크하면서 학습 스케줄과 건강 상태, 주요 사항 등을 직접 기록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한 작은 노트다.

■ **농협중앙회(회장 최원병)**는 CJ제일제당과 함께 농촌지역 결식아동 등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나눔기금 1억 원을 농협재단에 기부했다. 이번 기부금은 지난해 6월 농협중앙회와 CJ제일제당 간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CJ제일제당의 고추장과 햇반 상품 매출액의 1%를 적립해서 만든 기금으로 많은 고객들의 성원으로 당초 예상보다 많은 금액이 적립되었다.



■ **어윤대 KB금융지주 회장은** 강태선 블랙야크 회장과 함께 한국마케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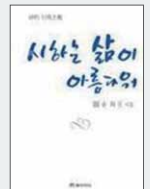
학회가 뽑은 '올해의 최고 경영자(CEO)'로 선정되었다. 한국마케팅학회는 매년 탁월한 지도력을 갖고 마케팅 발전에 기여한 CEO를 선정하고 있으며, 어윤대 회장은 금융기업에 최적화된 마케팅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해 브랜드 자산 가치를 향상시킨 점이 높게 평가되어 수상하게 되었다.



■ **쉴리코리아대표이사 윤종호**는 수면 자세를 바로잡아 척추가 뒤틀리는 현상을 막아주는 '포스처피딕 매트리스'를 출시했다. 이번에 출시된 매트리스는 모르페, 에오스, 레아, 클레이오 등 4종이다. 포스처피딕 매트리스는 정형외과적 관점에서 수면 시 최적의 자세를 연구해 제품에 적용한 것으로 지지력, 편안함, 내구성을 고루 갖추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 **윤화진 Avalon Venture 회장은** 시집 <시하는 삶이 아름다워>를 출간했다. 저자는 일상 속에서 온몸으로 써 온 시의 기록을 본 시집에 담아 풀어냈으며, '박쥐가 눈이 부셔', '미맹증', '인과응보를 아시나요', '꽃잎과 시인 이야기', '살아있는 모든 것' 등의 작품을 수록했다.



[연회비 납부에 감사드립니다 (2012년 9~10월)]

■ 법인회원

- (주)씨엔에스자산관리(회장 구천서)

■ 개인회원

- 공한수 Big Dream & Success
- 김희정 갤러리 에쁘고 대표
- 김석문 (주)신일팜글라스 대표이사
- 남기현 한국NGO총연합회 총재
- 이상원 미산우드(주) 대표이사
- 이시원 (주)부천 회장
- 장영주 화가
- 홍승국 에버그린MST 대표이사
- 이대식 (주)삼신기계 사장

[자녀분의 결혼을 축하합니다]

- **신재석 삼양미디어 대표이사**의 자녀 은영 양의 결혼식이 지난 9월 21일 (금)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 하모니볼룸에서 있었습니다.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 **김재용 백천산업 사장**의 장남 철현 군의 결혼식이 지난 10월 13일(토) 목동웨딩의전당 7층 그랜드홀에서 있었습니다.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한국 건설업계 1세대로서 업계 최초로 중동시장에 진출하는 등 국내 건설업계의 영역 확장을 주도해온 **삼환기업의 최종환 명예회장**께서 지난 9월 11일 노환으로 별세하셨습니다. 고인은 인간개발연구원 초창기부터 부회장으로서 연구원 발전에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기원드립니다.



[신규 회원]

- **구천서 (주)씨앤에스자산관리 회장(법인회원)**
(주)씨앤에스자산관리는 1980년에 설립된 건물종합관리업체로서 1997년 업계에서 유일하게 코스닥에 등록되었으며, '주인의식'이라는 사훈 아래 200여 현장에서 4,000여 직원이 합심하여 고객의 자산을 관리하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
- 홈페이지 : www.cnsamc.com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적선동 80번지



- **김희정 갤러리 에போ크 대표(개인회원)**
갤러리 에போ크는 '미술과 음악의 창조적인 만남'을 지향하고 있는 열린 공간으로 일상생활에서 만나기 쉽고 편안한 음악을 독창적으로 재해석한 미술 작품을 선보이는 복합문화공간이다. 뿐만 아니라 국내 유망한 신진 작가들을 육성하고 국내외 작가들과 적극적으로 문화교류를 나누고 있다.
- 홈페이지 : www.galleryepoque.com
- 대표번호 : 02-747-2075



[소모임 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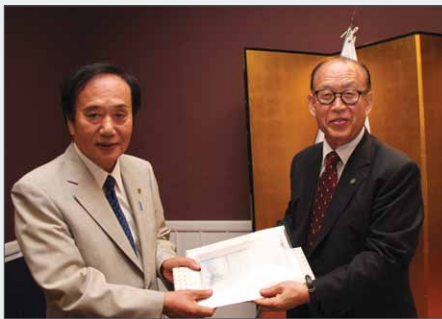
- **이종1그룹(회장 이윤수 / 총무 고지석)**은 9월 24일 오후 6시 30분 교대역 부근 '설국'에서 정기 모임을 갖고 회원 간 친교의 시간을 가진 한편, 26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부부동반 일본여행을 다녀왔다.
- **인목회(회장 차진영 / 총무 박이락)**는 10월 30일 오후 6시 30분 장충동 '대장금'에서 10월 정기모임을 갖고 회원 간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 **책·글쓰기를 위한 에세이클럽(회장 박춘봉 / 총무 정지환)**은 10월 20일 가을을 맞아 '작품 따라 거니는 섬진강 나들이' 문학기행을 다녀왔다. 40여 명의 회원들이 참여한 이번 문학기행은 시와 소설의 배경이 되는 곳을 찾아 자연을 느끼고, 회원 간 친교를 다지는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한편 11월 정기모임은 아래와 같이 개최된다.
 - 일시 : 2012년 11월 12일(월) 18:30~21:00
 - 장소 : 문학의집 서울 산림문화관 2층
 - 문의 : 정용달 팀장(Tel. 02-445-1949)

[창립기념일을 축하합니다]

회사명	이름/직함	창립기념일
(주)신성월드	권오범 사장	11월 01일
마리인터내셔널	최인숙 대표이사	11월 01일
(주)세원	김병춘 회장	11월 02일
(주)한일엔지니어링	이기군 사장	11월 03일
(주)비츠로그룹	장순상 회장	11월 08일
(주)덕성	이해성 부회장	11월 10일
유림물산	안상일 회장	11월 13일
(주)나노인터페이스테크놀로지	송재문 회장	11월 19일
서울특별시의회사회	임수흠 회장	12월 01일
(주)세스코	전순표 회장	12월 01일
중원콘텍(주)	김만용 사장	12월 10일
천일식품(주)	천석규 사장	12월 14일
(주)리사이트	이종원 대표이사	12월 16일
(주)성도GL	김상래 대표이사	12월 17일
원중물산(주)	이원기 회장	12월 20일
한일시멘트(주)	허기호 대표이사	12월 28일

장만기 회장, 日 사이타마현 지사 초청 일본 방문

‘미래의 인재육성 전략’ 주제로 제2회 사이타마 아시아포럼 기조강연
“교육이 사람을 바꿉니다”



장만기 회장이 10월 5일(금) 일본 사이타마현에서 개최된 제2회 사이타마 아시아포럼에 참석해 기조강연을 했다. 사이타마·아시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개최된 이번 포럼 참석은 우에다 키요시 현 지사의 초청으로 이루어졌으며, ‘한국과 일본이 서로 배우는 인재육성 전략’을 대주제로 사이타마현 상공회의소회관에서 500여 명의 기업인들과 관련 단체가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장 회장은 ‘미래의 인재육성 전략-Total People Technology’라는 기조강연에 앞서 인재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으며, 참다운 인간을 개발하고 육성하는 일이 미래사회 경쟁력을 확보하는 원천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강연을 시작했다. 이어서 참다운 인간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중요하며, 그 교육의 시작은 학교가 아닌 유아기 즉, 0~3세까지의 가정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인간의 뇌 용량은 무한한데, 70~80%는 0~3세 사이에 채워지고, 나머지는 이후 15년 사이에 채워진다. 15세까지 어떤 내용이 뇌를 차지하느냐에 따라 인격이 달라진다. 특히 0~3세 사이의 교육이 중요한데, 시각적으로 좋은 그림을 보거나 자연을 접하는 일, 음악을 듣거나 좋은 음성을 듣는 일, 감성을 통해 부드러운 접촉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모든 것이 태어나 어머니의 젖을 무는 것(휴먼 터치)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어머니의 심성, 삶의 자세가 아이들의 뇌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어머니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할 수 있다. 부모의 환경을 바탕으로 아이들의 뇌 발달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어머니와의 접촉을 통해 아름다운 감성들이 아이의 뇌에 고스란히 기록되고 기억되어진다는 것이다. 4세가 되면 인간은 자립성을 가지게 되는데, 3세

까지의 인성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아이에 대한 욕심으로 과도하게 지출하는 사교육비를 줄이고, 교육비 부담으로 인해 출산을 꺼리는 현상도 막을 수 있다는 것이 장 회장의 설명이다. 그리고 그것이 참다운 인재를 양성하고 미래의 경쟁력을 담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장 회장은 6일에는 일본 국제교류기금국제센터에서 열린 글로벌 리더 연수 과정에 참석해 특별강연을 펼치기도 했다. ‘사이타마발 세계행’의 귀국 장학생을 대상으로 개최된 이번 연수에서 장 회장은 ‘신세기를 사는 젊은이들에게’라는 주제로 글로벌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캐리어 개발 등에 대해 학생들과 함께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특별강연회에는 300여 명의 학생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기도 했다.

이번 포럼을 주최한 사이타마현 우에다 키요시 지사는 최근 약진하는 한국 경제의 배경에는 ‘사람’에 대한 존중과 인재육성의 중요성을 설파하는 장만기 회장의 공로가 컸다고 평가하고, 강사로 맞이해 한국과 일본이 서로 교류하고 향후 인재육성 전략의 방향을 고민해보자는 취지에서 포럼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포럼 개최 전 현지 TV 기자회견을 통해 “지금처럼 한일관계가 어려운 때일수록 이런 행사를 갖는 것이 한일 양국의 관계발전과 우호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신각수 주일 한국대사를 사전에 만나 포럼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번 포럼의 중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일본에서는 윤건인 외환은행 재일본 대표를 비롯해 노다 가즈오 일본중합연구소 이사장, 오다케 요시키 AFLAC 창업자, 일왕의 죽마고우로 잘 알려진 하시모토 아키라 등 재계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이번 포럼의 중요성에 대한 일본 사회의 인식을 잘 보여주었다. **KHDI**

아름다운 사람들의 아름다운 만남

인간개발연구원 멤버십은 건강한 습관, 건강한 네트워크를 만들어 갑니다.

회원자격

본 연구원의 이념과 정신에 동의하는 기업체 및 단체의 임원 또는 전문직업인, 사회적 여론 주도층(Opinion Leader) 또는 회원 1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회원서비스 안내

1. 온라인 서비스

- 이메일 서비스
(경영자연구회 후기, 회원칼럼, 회원소식, KHDI 웹진)
- KHDI 라이브러리(강연동영상, 녹취록 다운로드)
- 홈페이지
(회원사 수상 및 경조사, 신제품 등 회원동정 게재 및 홍보)

2. 오프라인 서비스

-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조찬세미나
참가비 회원가 우대 및 면제, 강연CD, 녹취록 매주 우송, 경영도서 제공
- CEO SUMMER FORUM 참가비 할인
- 회원커뮤니티 활동
-친목과 교류를 위한 이종기업 협력 동우회 (이종1그룹, 다락회, 화목회, 인목회), 골프클럽(인경회), Young Ceo Forum, 차이나클럽, 책·글쓰기를 위한 에세이클럽
- 독서경영 오픈세미나 무·유료 참석
- 국·내외 시찰 Program
- 회원친선행사(찾아가는 CEO교실, 회원사방문, 송년파티 외)
- 정기 간행물 제공
- 기업 교육컨설팅

회원이 되시려면

회원가입신청서 제출 ▶ 심사 ▶ 연회비납부 ▶ 회원활동

서비스 구분	서비스 항목	특별 할인	법인 회원	세미나 회원	개인 회원	오디오 회원	온라인 평생회원	후원/나눔 회원
오프라인	회원혜택 적용인원수	10인	5인	1인	1인	1인	1인	후원, 강연, 재능 기부 시 정회원 예우 ※본 연구원은 지식경제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입니다.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조찬세미나 참가비 (매주 목요일 개최)	면제/2인	면제/1인	면제/1인	회원가	비회원가	비회원가	
	회원 커뮤니티 가입자격	○	○	○	○			
	회원친선행사(무료, 유료)	○	○	○	○			
	기업소식 및 동정 홍보 (매거진, 이메일, 팩스, 유인물배포)	○	○	○	○			
	CEO SUMMER FORUM 참가비 할인	○	○	○	○			
	국내외 산업시찰 참가비 할인	○	○	○	○			
	독서경영 오픈세미나(무료, 유료)	○	○	○	○			
	조찬세미나 강연 CD 매주발송 정기 간행물 및 도서제공	5개	3개	1개	1개	1개 [도서제외]	별도구매	
온라인	교육컨설팅(명사섭외, 연수프로그램기획 등)	○	○	○	○			정기간행물 발송
	KHDI 라이브러리 아이디 부여(동영상, 녹취록 제공)	○	○	○	○		○	
	강연 후기 이메일 서비스	○	○	○	○	○	○	
회비	연회비/온라인 평생회원은 1회 납부	650만 원	390만 원	290만 원	130만 원	60만 원	100만 원	

- 입금계좌: 하나은행 102-910003-99904 예금주 (사)한국인간개발연구원
- 문의: 경영자교육팀 T. 02-445-1948



태풍의 피해 속에서도 끊임없는 평생학습 열기

[교육컨설팅 소식]

- 명절과 태풍의 영향 속에서도 전국 60여 기관에서 9~10월 140여 회 진행



만추의 한가운데 지방자치아카데미는 그간 볼라벤과 같은 태풍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한가위 차례상과 같이 풍성하게 운영되었다.

9월 4일 대구 달서구에서는 국내 유방암 분야 권위자인 노동영 서울대 유방암병원장을 모시고 하반기 첫 강연의 포문을 열었다. 9월 6일 경남 거제시에서는 5부작 <까마귀>의 저자 한수산 작가를 모시고

작가의 경험과 <까마귀> 집필과정에 관한 깊은 논의의 시간을 가졌고, 9월 12일 경주시에서는 김영식 천호식품 회장을 모시고 도전과 열정으로 일궈낸 성공스토리를 전해 듣는 시간을 가졌다. 9월 21일 경남 거창에서는 인간문화재 이생강 대금연주가를 모시고 우리의 소리에 심취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9월 26일 구미시에서는 중앙일보에 '마음이 아프지 마'라는 칼럼을 연재하고 있는 윤대현 서울대 강남병원 교수를 모시고 두뇌건강 및 스트레스 관리에 관한 특강을 진행했다.

한편 10월 11일 평창군에서는 이시형 세로토닌문화원 원장을 모시고 평생학습에 관한 특강을 진행했고, 10월 17일 서울 강북구에서는 섬진강 시인 김용택 시인과 자연과 시에 관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10월 18일 전남 장성에서는 국내 5대 심리분석가 중 한 분인 이무석 전남대 명예교수를 모시고 자존감과 행복한 마음경영에 관한 특강을 진행하였으며, 10월 25일 고흥에서는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을 모시고 동반성장을 통한 한국 미래의 청사진을 전해 듣는 시간

을 가졌다.

기업정기교육에서는 영흥화력발전소에서 9월 6일과 13일 김기호 아름다운삶교육원 대표가 '변화와 혁신을 위한 새 생명 체험교육'을 진행해 조직의 혁신을 위한 바탕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리바트 '리바트아카데미'에서는 최창호 알파브레인연구소 소장이 '무엇이 사람을 움직이는가 - 마음을 움직이는 77가지 키워드'를 주제로 인간심리와 대인관계 기법에 대해 강연을 펼쳤다. 윤생진 창조경영연구소 대표는 10월 16일~17일 양일에 걸쳐 크루셀텍의 월례특강, YPP의 전력계통 전문가교육을 통해 창조와 열정에 관한 강연을 진행했다. 10월의 마지막 날인 31일에는 이채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한국마사회 월례특강에 나서 '뭔가 다른 인천공항 무엇이 다른가'라는 주제로 세계적인 공항의 위상을 떨치고 있는 인천공항의 운영 노하우를 들려주는 시간을 가졌다.

이로써 지난 9~10월 동안 전국 60여 개 기관에서 140여 회에 이르는 교육이 진행되며 깊어가는 가을과 함께 배움의 열정 역시 더욱 깊어만 갔다.

[교육컨설팅기관 소식]

- 제43대 육군참모총장 조정환 대장 취임 “시대적 소명인 정예 선진육군 육성”



제43대 육군참모총장 조정환(육사 33기) 대장의 취임식과 제42대 김상기 참모총장의 이임 및 전역식이 지난 10월 11일 오후 3시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거행됐다. 김관진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군 주요 지휘관 및 내외 귀빈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된 이날 행사는 국민의례, 명령낭독, 군기(지휘권) 이양, 열병, 장

관 훈시, 이임사 및 전역사, 취임사 순서로 진행됐다. 조 총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우리 군은 국제적 안보환경의 불안과 호전적 북한정권의 도발 가능성, 국방개혁 추진 등 복잡한 국내 정세와 국민적 요구 등 엄중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시대적 소명인 ‘정에 선진 육군’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임 조 총장은 제22보병사단장, 육군본부 정보작전지원참모부장, 제5군단장, 육군참모차장 등 주요 직책을 두루 역임했다.

한편, 이날 이임 및 전역한 김상기 대장은 총장 재임 22개월 동안, ‘전투형 강군 도약’을 목표로 ‘창끝부대 전투력 강화’, ‘교육훈련 혁신’, ‘행정간소화에 기반한 일하는 문화 개선’, ‘선진 병영문화 정착’ 등에 진력해 왔으며, 전투 위주의 군 운영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 광진구, 동화나라 공화국 중앙청 개청



서울 광진구(구청장 김기동)는 10월 19일 구청 본관 앞에서 ‘동화나라 공화국 개청식’을 가졌다. 광진구는 지난 4월 27일부터 5월 7일까지 어린이대공원에

서 전시 체험 학습 이벤트 등으로 구성된 ‘2012 서울동화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이후 지난 10월 10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납이섬을 포함한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북, 경북 등 10개 지자체가 각자 특화된 주제에 따라 상상의 나라로 꾸미는 ‘상상나라 국가연합’ 공동 선언을 함께했다. 이에 ‘동화나라 공화국 광진! 중앙청 개청식’을 시작으로 구는 동화이미지 구축 사업, 동화공모전, 동화출판업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나갈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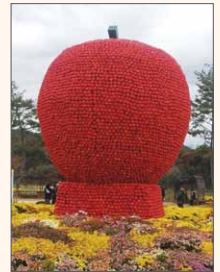
■ 용인시, 사회적기업 지원센터 문 열어



경기 용인시(시장 김학교)가 용인시 관내 사회적기업을 육성 지원하는 ‘사회적기업 지원센터’를 오픈했다. 10월 10일 시청사 1층에서 현판식을 갖고 업무에 돌입한 지원센터는 용인시 내 사회적기업을 발굴 육성하고, 이들의 생산품 판로 개척과 함께 수지구청 1층 로비에 설치된 사회적기업 공동판매장을 지원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 또한 사회적기업의 경영컨설팅과 교육, 지역 사회적기업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인적, 물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업무를 추진할 예정이다.

■ 청송 사과축제

경북 청송군(군수 한동수)은 산자수려한 청정지역에서 생산된 청송사과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널리 홍보하는 ‘사과축제’를 개최한다. 군은 차별화된 청송 친환경 사과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 사과와 관련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축제 기간 동안 사과춤 경연대회, 사과 짹 짹 경매, 사과 즉석 홈쇼핑 등의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 일시: 2012년 11월 9일~11일
- 장소: 경북 청송군 사과공원

■ 평창 송어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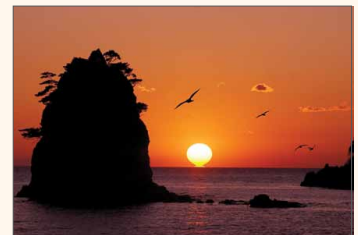
강원 평창군(군수 이석래)은 오는 겨울 우리 조상들의 전통을 잇는 ‘송어축제’를 마련한다. 우리 조상들은 매년 겨울이 되면 얼어있는 강바닥을 깨서 겨울 물고기를 잡아 한 끼를 때우던 시절이 있었다. 이러한 전통을 살려 군은 투명하게 보이는 오대천 겨울 물고기 낚시의 짜릿한 손맛을 느끼며 다양한 겨울체험행사와 함께 진정한 겨울축제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송어축제를 개최한다.



- 일시: 2012년 12월 22일~2013년 2월 3일
- 장소: 강원 평창군 오대천 송어축제장

■ 태안 빛과 노을 꽃 축제

충남 태안군(군수 진태구)이 4계절 꽃 축제 중 겨울에 열리는 ‘빛과 노을 꽃 축제’를 개최한다. 대한민국 화훼산업의 중심지인 태안에서 열리는 이번 축제는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빛으로 진행되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며, 태안의 아름다운 바다와 맛있는 먹거리들로 즐거운 여행을 선사하게 된다.



- 일시: 2012년 12월 20일~2013년 1월 31일
- 장소: 충남 태안군 네이처월드

회사와 조직의 문제를 항상 고민하는 경영진, 여러 가지 문제점들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우리 직원들의 창의력을 어떻게 개발하지?

업무프로세스가 왜 이러지?

우리 조직은 문제가 많아 뭔가 좋은 해결책이 없을까?

시간관리가 안돼!

우리 리더는 리더십이 부족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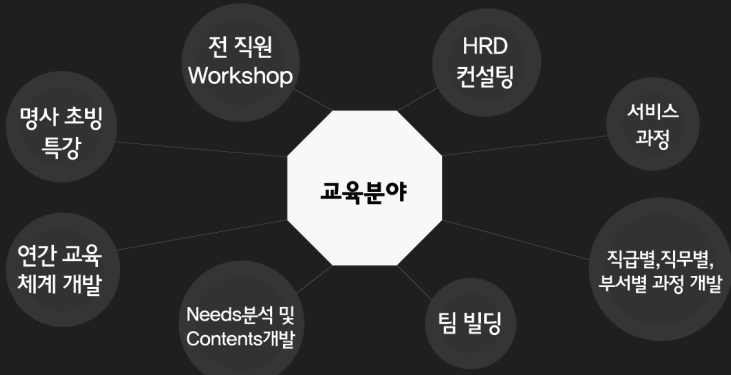
올해도 예전방식대로 그냥 흘러가야 하나?

효과적인 마케팅 방안이 뭘까?

우리 조직의 문화를 활기치게 바꿀 순 없을까?

우리회사의 비전이 뭐지?

우리 조직 구성원들의 균형적인 발전과 핵심인재로의 성장! 상황과 조건에 맞는 다양한 해법으로 하나씩 묶여있는 매듭을 풀니다



인간개발연구원은

플라톤은 '탁월성은 지속성이다' 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탁월한 모든 것은 바로 그 지속성의 산물이고, 그 중 교육은 더욱더 그러합니다. 콩나물시루에 물을 부으면 그 물은 밑으로 빠져나가버리고 콩은 콩나물로 자라납니다. 세상을 사는 사람들의 하루하루가 비슷해 보이겠지만 그렇게 쉬지 않고 스스로에게 물을 부어댄 사람들은 지혜의 거인이 되어 이 시대를 이끌고 있습니다. 인간개발연구원은 지난 37년간 지속적인 지혜의 물을 사회에 부어 CSV(Continue Share Value) - 지속적 가치의 공유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직급별과정	테마별과정	Core Competency	Business Skill
관리자교육과정	손자병법리더십과정	DOL(Dimension of Leadership)	Communication(소통)과정
사원교육과정	힐링 리더십과정	SHL(Self Heal Leadership)	리더의 마음을 여는 의사소통과정
매니저교육과정	오디션 리더십전략	Risk Management 과정	전략적 시간관리 과정
시니어교육과정	멘토스쿨	Performance Managing 과정	성과향상코칭 과정
신입사원교육과정	이순신에게 배우는 "불패의 리더십"	전략적 리더십 과정	기획능력 개발 과정
팀리더교육과정	"새생명(임종)" 체험과정	여성리더십과정	프리젠테이션 과정
		신뢰를 주는 스피치 과정	미팅/조회 스킬 과정
			Winner를 만드는 불패협상스킬과정

판도라

기업의 희망을 담은

People Development Reengineering
P A N D O R A

인간개발연구원은 지난 37년간 기업과 지자체에 수 많은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 지혜의 나눔을 실현해오고 있습니다. 경영, 경제, 문화, 건강, 글로벌, 리더십, 의식혁신, 자기계발 등 다양한 분야의 초일류 명사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변화의 물결을 주도해왔습니다

2013 KHDI LEARNING PROGRAM
Korea Human Development Institute

문의 | 교육기획팀 070-8670-8436

그룹내 계열사 평가에서 낮은 평가를 받던 포스코 ICT, 2년 뒤 평가에서 몰입도와 행복지수 1위가 된 **기적같은 이야기**

추천 교육

★ 과정목표

힐링이란 사전적 정의로 몸과 마음의 치유를 말한다. 힐링리더십 과정은 포괄적인 개념의 정서적 치유로서 따뜻한 리더십을 통한 치유의 리더로 조직 내 경험의 공유를 통한 감사, 나눔의 문화를 정착시키고 긍정적리더십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다.

★ 기대역량

- 따뜻한 리더로서 / 감사/ 나눔 / 치유의 리더십을 발현한다.
- 상대방을 높이고 존중하여 관계에서의 단기적 승리와 리더십의 영향력을 통해 업무에서의 장기적 승리를 얻을 수 있다.
- 리더십 1단계 > 지식의 주입(해결사항)
- 리더십 2단계 > 경험을 통한 대화 (소통 공감형)
- 리더십 3단계 > 상대의 경험에 대한 치유 (힐링형)
- 감동하고 공감하며 긍정의 영향력을 행사한다.

조직의 문제를 치유하는 힐링 리더십 과정

Module	단위별 내용
Gratitude	어느 문제 많은 회사의 기적적인 변화 조직 변화의 비결 5강 2독 1선 Action plan
Shared	행복나눔 125 감사와 나눔의 달인들 조직의 운명을 바꾼 감사 나눔 효과 Action plan
Experience	Action plan 작성 실현 가능 운동 경험의 공유
Healing Leader	수평적 소통과 배려 감동하는 리더의 파급효과 긍정의 영향력

Sales & Marketing Converge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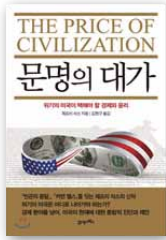
세일즈트렌드워칭
영업관리자 역량강화
비즈니스 4단계과정
신규 고객 개척 전략
브랜딩 마스터과정
마케팅 마스터 과정

Organization Program

조직치유와 시너지를 위한 힐링캠프
Team Success School
Creativity & Innovation
비전풍등
Mental Vitamin
Synergy & Change
조직 협력"도미노"
열정과집중의 "도자기 만들기"

카드섹션

Family Training
화합의 하모니
- 조직의 활성화 "드림&난타"
- 함께하는 즐거움 "댄스Life"
- Role playing을 통한
조직문화 "연극치유"



문명의 대가

제프리 삭스 / 김현구역 / 21세기북스 / 392쪽

위기의 미국이 택해야 할 경제와 윤리

거대한 제국 미국에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가? 이 책은 위기의 미국에 대한 총체적 진단이 담겨 있다. 저자에 따르면 미국이 당면한 위기는 경제만이 아닌 사회 전반의 붕괴를 반영한다. 특히 그 배경에는 뿌리 깊은 도덕적 위기가 존재한다. 개인과 사회의 역할에 대한 시민적 미덕이 쇠퇴한 것이다. 결국 미국의 실패는 그것이 경제적인 만큼 정치적이며 또한 사회적이다. 이에 저자는 금융위기를 경제라는 범주로 제한하여 논의하는 데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지금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게리 해멀 / 방영호 역, 강산장 감수 / 알키 / 420쪽

게리 해멀이 던지는 비즈니스의 5가지 쟁점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2011년 12월호에는 현존하는 세계 최고 경영사상가의 문제적 글이 실렸다. '먼저, 관리자들을 모조리 해고하라 First, Let's Fire All the Managers'라는 제목부터가 파격적인 이 글은 바로 혁신 전도사 게리 해멀이 쓴 것이었다. 금융위기를 겪으며 유수의 기업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바라봐야 했던 그는 이전과 같은 강도의 혁신, 같은 방향의 전략으로는 미래를 장담할 수 없음을 절감하게 된다. 이 책은 바로 이러한 고민의 산물이자 그가 내린 명쾌한 해답이다.



김수환 추기경의 친전

차동엽 엮음 / 위즈앤비즈 / 300쪽

누구라도 그대가 되어 받아 주세요

사랑의 터치로 위로와 치유를 주는 김수환 추기경의 '친전' 메시지를 담은 책이다. 인천가톨릭대 교수이자 미래사목연구소 소장으로서 재직 중인 차동엽 신부가 세상의 여정을 마치고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던 김수환 추기경의 생생한 육성을 담아 엮은 책이다. 꿈이 흔들리는 젊은이들, 생존의 불안과 회의를 겪고 있는 이들, 시대의 리더가 되기를 꿈꾸는 꿈쟁이들, 좌절을 겪고 있는 이들과 교감하여 사랑이 넘치는 육성 응원을 전하는 글들로 채워져 있다. 김수환 추기경의 친전은 큰 어른의 품과 깊이로, 길을 헤매는 우리에게 따뜻한 등불이 되어줄 것이다.



빅데이터, 경영을 바꾸다

함유근, 채승병 공저 / 삼성경제연구소 / 328쪽

빅데이터에 관해 알아야 할 모든 것

우리 주변에 나날이 쌓여가는 거대한 데이터는 더 이상 저장매체만 낭비하는 쓰레기가 아니라 기존의 방식으로서는 답을 찾지 못한 온갖 문제들에 대해 새로운 접근법을 열어주는 원석으로 각광받고 있다. 전 세계의 IT 업계는 물론 다양한 민간과 공공 영역에서 빅데이터의 가치에 주목하고 있다. 이 책은 이처럼 2010년대 들어 최대의 이슈로 부상한 빅데이터가 과연 무엇이며, 왜 '세상을 바꿀 지혜의 쓰레기통'으로 불리는지, 무엇이 빅데이터 시대라는 도도한 트렌드를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이시형처럼 살아라

이시형 저 / 비타북스 / 320쪽

뇌의 원리로 30년 젊게 사는 비결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정신과 의사이자 뇌과학자인 이시형 박사가 뇌의 원리로 30년 젊게 사는 건강 비결을 밝힌다. 저자는 이 책을 자신이 40대 후반에 겪은 건강상의 위기와 이를 극복하고 현재 '80 중년'이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게 만든 '트리밍 프로그램'을 전하고자 한다. 트리밍 프로그램은 이시형 박사가 몸소 실천하고 경험한 실천지침과 뇌과학적 지식, 각 분야 전문의의 총체적 결과물이다. 생활습관 의학연구회를 조직해 각 분야 전문의와 함께 연구해온 뇌과학과 정신의학을 활용한 '면역력과 자연치유력'을 높이는 방법을 선보인다.



멀티플라이어

리즈 와이즈먼, 그렉 맥커운 공저 / 최정인 역, 고

영건 감수 / 한국경제신문사 / 361쪽

전 세계 글로벌 리더 150명을 20년간 탐구한 연구 보고서

멀티플라이어란 상대의 능력을 최대로 끌어올려 팀과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는 리더를 뜻한다. 이들은 함께하는 사람들의 능력을 2배로 끌어올려 자원의 추가 투입 없이도 생산성을 2배 이상 높일 수 있다고 한다. 저자들은 글로벌 기업 35개사의 150명 이상의 임원을 대상으로 20년 동안 연구한 결과 멀티플라이어 효과가 엄연히 존재한다는 점을 입증하였다. 또한 이 책을 통해 탁월한 성과를 내는 멀티플라이어의 특성 5가지를 뽑아내 누구나 멀티플라이어가 될 수 있게 돕는다.



2012 소프라노 조수미 내한공연

- La Luce

조수미가 선사하는 2012년 최고의 명품 클래식 공연. 영혼을 울리는 감동의 멜로디가 찾아온다. 이번 공연에는 현재 가수와 뮤지컬 배우로 활동 중인 옥주현과 감미로운 음성과 세련된 외모로 인기를 얻고 있는 크로스오버 임태경이 특별 출연해 그들의 음악성과 열정을 모두 발휘하는 무대가 될 것이다.

- **일정:** 11월 6일(화) 20:00
- **장소:**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 **문의:** 02-3461-0976



오페라 리골레토

'바람에 날리는 갈대와 같이 항상 변하는 여자의 마음'이라는 노래로 유명한 오페라 리골레토가 예술의전당 오페라 극장에서 공연된다. 이 '여자의 마음(La donna e mobile)'이라는 아리아는 아주 가볍고 명랑하게 들리지만, 이 노래가 들어있는 오페라 <리골레토>는 베르디의 여러 걸작 오페라 가운데서도 가장 사회 비판적 성격이 강한 작품으로 알려졌다.

- **일정:** 11월 2일(금)~11월 4일(일)
- **장소:**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 **문의:** 02-456-4392



오페레타 박쥐

오페레타(operetta)란 '작은 오페라(opera)'를 뜻한다. 왈츠, 폴카, 차르다시 등 다양한 춤곡의 리듬이 주도하는 요한 슈트라우스의 대표작 오페레타 <박쥐>가 국립오페라단 무대에 오른다. 이번 무대는 원작의 위트와 한국 관객을 위해 각색한 짜임새 있는 대본, 요한 슈트라우스의 깊이 있는 음악의 환상적인 조화를 통해 빚어진 작품을 선사할 것이다.

- **일정:** 11월 28일(수)~12월 1일(토)
- **장소:**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 **문의:** 02-586-5282



연극 그와 그녀의 목요일

대한민국 대표 명품 배우 배종옥, 조재현이 호흡을 맞춘 작품이다. 저명한 역사학자 '그'와 은퇴한 국제 분쟁 전문기자 '그녀', 매주 목요일 특별한 주제에 대해 벌어지는 지적이고 세련된 대화가 이어진다. 그러나 매번 사소한 말다툼으로 번지는 대화는 옛일까지 들춰내고, 같은 추억을 전혀 다른 상황으로 기억하게 한다. 이 작품은 그동안 만나보지 못했던 가장 지적이고 세련된 로맨틱 연극이 될 것이다.

- **일정:** 11월 23일(금)~12월 30일(일)
- **장소:**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
- **문의:** 02-580-1300



창극 장화홍련

한태숙, 정복근 콤비가 다시 만나 새로운 개념의 창극을 선보인다. 2001년 연극 <배장화 배홍련>, 2003년 김지운 감독의 영화 <장화홍련>에 이어 2012년 창극 <장화홍련>으로 탄생한다. 스릴러 창극을 구현하기 위해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무대 위에 객석을 올려 관객들은 흡사 마술의 집과 같은 등골이 오싷한 공포를 체험하게 될 것이다.

- **일정:** 11월 27일(화)~11월 30일(금)
- **장소:**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 **문의:** 02-2280-4114



발레 백조의 호수

KDB대우증권 창립 42주년 마린스키 발레 <백조의 호수>가 찾아온다. 마린스키의 이 작품은 화려한 의상, 무대디자인, 그리고 차이콥스키의 완벽한 음악과 아름답고 과감한 표현력으로 관객들로 하여금 진정한 놀라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불멸의 역작이다. 현재 '러시아 음악 황제'로 불리는 절대적 카리스마 게르기예프의 지휘봉 아래에 있는 오케스트라는 완벽에 가까운 연주로 음악만으로도 충만한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

- **일정:** 11월 11일(일)~11월 13일(화)
- **장소:** 세종문화회관 세종대극장
- **문의:** 02-1577-5266

생각의 창의성, 트리즈로 혁신하라

제27회 '행복중심 수요특강' 10월 17일(목)

본원은 1995년부터 전국의 자치단체 및 기업,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공직자를 비롯한 지역 주민, 조직 구성원들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을 일깨우며 우리 사회 평생학습체제 구축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평창군청(군수 이석래)과 본원이 2006년 개설한 평창아카데미는 현재 '행복중심 수요특강' (공직자 및 유관기관 임직원), 'Happy700 평창아카데미' (평창군민), '찾아가는 Happy700 평창아카데미' (평창군민), 'Happy700 평창아카데미 현장학습' (평창군민), 'Happy700 평창아카데미 청소년특강' (청소년) 등 공직자와 시민, 청소년 등으로 세분화되어 새로운 지식과 정보, 소양함양을 통해 창의적인 지역인재 육성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본원과 평창군은 다양하고 전문적인 강연을 통해 자기 혁신 및 자기 개발로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열린 교육의 장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명사초청특강에서는 지난 10월 17일 '생각의 창의성, 트리즈로 혁신하라'를 주제로 강연해주신 김효준 대표의 강연을 소개하는 지면을 마련하였습니다.





오늘은 창의적 문제 해결 이론인 트리즈(TRIZ)를 이야기하겠다. TRIZ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이론'을 뜻하는 러시아어(Teoriya Resheniya Izobretatelskikh Zadatch)의 머리글자를 딴 단어로, 러시아 사람인 겐리히 알츠슐러가 만들었다.

그는 평생에 걸쳐 전 세계 수백만 개의 특허를 전부 분석하였고, 그 결과 40가지의 발명 원리, 76가지의 표준해결책, 문제 해결 프로세스(ARIZ)라는 공통점을 도출해냈다. 현재 트리즈 이론은 기술 분야뿐 아니라 정치, 외교, 금융, 마케팅에 적용되는 이론이다.

트리즈 이론에는 중요한 핵심 개념 3가지가 있다. 첫째, 비용이 적게 든다는 것이다. 둘째, 자원을 100% 활용한다는 것이다. 셋째, 모순을 극복한다는 것이다.

창의적 아이디어는 비용이 적게 든다

1994년 스웨덴에서 배 한 척이 폭풍우로 침몰해 배에 탔던 989명 중 959명이 죽는 대참사가 일어났다. 사고를 당한 선박회사에는 엄청난 위기가 닥쳤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 전문가들을 불러 모았다.

여러 의견이 오고가던 어느 날 트리즈 전문가가 돈 한 톨 들이지 않고 해결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문제가 발생한 시각을 체크해보니 배 안에 자동차가 들어가고 나갈 때가 아니라 중간 시간이었다. 따라서 발포성 수지로 인한 막이 중간에 생성되도록 하는 아이디어로 문제 해결 비용을 30분의 1로 줄였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몇 시간 뒤, 물이 새면 배수로 구멍을 통해 배 밑바닥으로 보내버리는 방법으로 문제를 돈 하나 안 들이고 해결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트리즈의 40가지 발명 원리 중 22번째 '안 좋은 것은 좋은 것으로'를 사용한 것이다.

창의적 아이디어는 자원을 활용한다

예전에 한국에서 인기를 끌었던 '맥가이버'라는 미국 드라마가 있었다. 맥가이버는 문제가 발생하면 주위를 둘러보고 일상생활의 물건을 응용해서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무기를 손쉽게 만들곤 했다. 문제를 해결할 때 주변에 있는 자원들을 활용해 해결하는 능력이 있었던 것이다.

애플컴퓨터는 원래 마우스 버튼이 하나였다. 그런데 마우스 오른쪽 버튼의 필요성을 느끼자 마우스를 사용할 때 원래 가지고 있는 자원인 '손가락'을 이용했다. 손가락 하나를 움직여 버튼을 누르면 마우스 왼쪽 클릭이 되고, 손가락 두 개를 대고 누르면 오른쪽 버튼이 되게 하는 원리를 사용한 것이다.

창의적 아이디어는 모순을 극복한다

인터넷 포털 업체는 광고를 통해서 돈을 번다. 따라서 광고의 개수가 늘어나면 매출이 올라간다. 하지만 광고를 많이 실으면 화면이 복잡해지고 네티즌들이 기피한다. 이를 간파한 구글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냈다. 구글은 초기화면에 광고를 하나도 올리지 않아서 세계 최고의 접속률을 기록하고 있다. 대신 구글의 광고는 검색어를 입력하면 그 검색어와 관련된 광고가 집중적으로 올라오는 원리이다. 이에 네티즌들은 거부감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좋아한다. 트리즈의 40가지 발명 원리 중 10번 '미리 조치하다'와 2번 '필요한 것만 뽑다'를 사용한 것이다. 1500년에 나온 화승총이라는 것이 있다. 이 총은 한 번 발사하고 나서 재장전하는데 1분이 걸렸다. 재장전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총신의 길이가 짧아져야 했다. 그러나 사격의 정확도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총신의 길이가 길어야 했다.

이때 독일에서 5초 만에 재장전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나왔다. 독일은 이 기술로 주변국을 점령하면서 1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다. 당시 화승총은 앞에서 장전했는데, 화약과 총알을 일체화시킨 후 후방 장전하는 방법으로 문제의 모순을 극복했다. 이것은 40가지 발명 원리 중 '반대로 하기'가 적용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모순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

창의적 발명들 중 모순을 극복하는데 사용된 원리를 발굴해서 분석하고 분류해보았더니 크게 두 가지 종류의 모순으로 나뉘었다. 하나는 기술적 모순, 또 하나는 물리적 모순이다.

인터넷 포털 업체의 경우를 보면 광고 개수가 많아지면 네티즌이 기피하고, 광고 개수를 줄이면 네티즌은 좋아하지만 수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서로 다른 두 개가 충돌하는 경우(광고 VS 접속횟수)를 기술적 모순으로 분류하고, 이 경우 40가지 발명 원리를 이용하여 해결하면 된다.

화승총의 경우를 보면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총신이 짧아져야 하고, 정확도를 위해서는 총신이 길어져야 한다. 이렇게 어느 하나가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는 것(길어야 되고 짧아야 되는 것)은 물리적 모순으로 분류하고, 이 경우 분리의 원리 3가지를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발명의 원리 40가지

01. Segmentation	쪼개어보다
02. Extraction	필요한 것만 뽑아내다
03. Local Quality	전부 똑같이 할 필요 없다
04. Asymmetry	대칭이면 비대칭으로
05. Consolidation	여러 번을 한번으로
06. Multifunction	하나를 여러 용도로
07. Nesting	포개어보다
08. Counter Weight	지구 중력 회피하자
09. Preliminary Counter Action	미리 반대로 조치하다
10. Preliminary Action	미리 조치하다
11. Preliminary Compensation	미리 예방하다
12. Equipotential	들어서 옮길 필요 없다
13. Do It Reverse	역발상, 반대로 하기
14. Curvature Increase	직선은 곡선으로, 직사각형을 벗어나자
15. Dynamicity	고정된 것은 움직이게
16. Partial or Excessive	일부러 부족하게 혹은 초과하게
17. Dimension Change	수평이면 수직으로
18. Vibration	진동을 이용하자
19. Periodic Action	주기적으로 동작
20. Continuity of Useful Action	유용한 작용을 연속으로
21. Hurrying	안 좋은 것은 후딱
22. Convert Harmful to Useful	안 좋은 것은 좋은 것으로
23. Feedback	피드백이 되게
24. Intermediate	중간매개물을 활용
25. Self-service	자동으로, 스스로 하게
26. Copy	복사
27. Cheap Short Life	값싸고 짧은 수명
28. Replacing Mechanical System	기계시스템은 광학이나 음향으로
29. Pneumatics and Hydraulics	공기나 유압을 사용
30. Flexible Shell and Thin Film	얇은 막
31. Porous Material	다공성 물질
32. Optical Property Change	색상변화
33. Homogeneity	동질성을 가지다
34. Discarding and Recovering	폐기 및 재생
35. Parameter Change	속성 변화
36. Phase Transition	상변화를 이용하자
37. Thermal Expansion	열팽창을 이용하자
38. Strong Oxidants	산화제
39. Inert Atmosphere	불활성환경
40. Composite Material	복합재료

“
트리즈 기법의 핵심 원리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비용이 적게 든다,
창의적 아이디어는
자원을 활용한다,
창의적 아이디어는
모순을 극복한다는 것이다.
”

분리의 원리 3가지

분리의 원리는 시간에 의한 분리, 공간에 의한 분리, 전체의 부분에 의한 분리로 나눌 수 있다. 비행기의 바퀴는 이착륙 시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비행 시에는 바퀴로 인한 공기저항으로 연료손실이 크다. 따라서 이착륙 시에는 바퀴를 사용하고 비행 중에는 바퀴를 접는 방법을 사용한다. 이것이 시간을 분리해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다.

앞서 이야기한 화승총은 총신을 짧아야 하거나 길어야 하는 문제였다. 이 문제의 해결방법은 앞에서 장전하는 방식이 아닌 총알과 화약을 뒤에서 장전하는 것으로 해결했다. 이것은 공간에 의한 분리로 물리적 모순을 해결한 것이다.

자전거 체인은 동력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단단해야 하고, 페달을 이용해 원형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유연해야 한다. 따라서 자전거 체인은 전체는 부드럽고, 부분은 강하게 만들었다. 전체와 부분에 의한 분리를 통해 전체도 만족시키고 부분도 만족시킨 것이다.

트리즈 기법의 핵심 원리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비용이 적게 든다’, ‘창의적 아이디어는 자원을 활용한다’, ‘창의적 아이디어는 모순을 극복한다’는 것이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바라볼 때는 자기도 모르게 생각의 틀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이 생각의 틀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문화적, 사회적 요건으로 만들어지는데, 창의성은 이 생각의 틀을 깨는 것이다. 좋은 아이디어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생각하는 데에서 나온다. **김효준 대표**

● 김효준 대표

1972년생으로 포항공대를 졸업하고 97년 삼성종합기술원에 입사했다. 삼성종합기술원 유가광디스크 개발 연구원을 역임하면서 국제트리즈협회 MATRIX 인증, 국내 최초 트리즈 전문가 레벨4를 획득했다. 삼성그룹 MBB 양성과정에서 ‘비기술 분야 트리즈 적용’을 주제로 강의했으며, 그룹 내 트리즈 컨설팅 및 교육을 실시했다. <생각의 창의성>이라는 트리즈 저서를 출판했으며, 현재 한국트리즈컨설팅 대표로 활동 중이다.

세 번째 밀레니엄은 한국이 선도할 것

2012년은 선거의 해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16개국에서 대통령 또는 총리를 이미 선출했거나 미국과 한국은 곧 선거를 치를 예정이다. 미국의 경우 민주당의 오바마 현직 대통령과 공화당의 미트 롬니의 선거전이 대박을 터뜨린 가운데 대작의 드라마를 보듯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12.19 대선 후보자인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안철수 무소속 후보 등 3인의 선거전은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울 만큼 치열하다 못해 우리들의 머리가 몽롱해지고 때로는 혐오감, 싫증까지 내게 하여 안타깝기 그지없다.

세 후보에 대한 국민들의 일반적인 느낌은 국민이 믿고 표를 던지게 할 만한 비전 제시가 약하고 애국심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국가를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가짐을 읽을 수 없다는 안타까움이 대선을 치러야 할 우리 국민들의 심정이다.

그 어느 때인들 국가의 앞날을 맡겨야 할 지도자를 뽑는 대선이 국가의 중대사가 아닌 적이 있었으랴만 올해 18대 대통령 선거는 한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선거인 것은 국민 누구나 감지하고 있다.

한국 가톨릭계 대표 석학이자 21세기를 맞은 한국의 대표 지성인으로 존경받는 정의재 문사놀은 최근 <인류공동문화와 지각변동속의 한국>이라는 한 권의 책을 내고 “세 번째 밀레니엄(21세기를 시발로 한 앞으로의 1,000년)은 동양, 그 중에서도 한국이 선도하게 된다”, “새천년 새 질서는 ‘새 술을 새 부대에 담으라’는 지혜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그가 한국의 역할에 주목하는 밑바탕에는 가장 빈곤했던 식민지 국가, 이념전쟁(6.25전쟁)으로 초토화된 나라로부터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 원조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제공하는 나라로 발돋움한 나라는 2차 대전 이후 오직 한국뿐이기 때문이다.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 위치한 한국의 정치 경제적 위치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면 시련에 직면한 자본주의 경제를 4.0의 따뜻한 자본주의 경제로, 그리고 ‘행복한 발전’ 등으로 위기에 직면한 인류 사조의 흐름을 증오와 갈등, 대립과 투쟁에서 ‘사랑’의 실천(나눔)으로 바뀌어나갈 수 있다는 신념을 토로한 것이다.

그렇다. 우리 한국 말고 그 어느 나라가 2012년 ‘대재난의 해’를 극복하고 앞으로 새천년을 내다보는 인류 역사에 새로운 희망의 햇불을 밝히고 선도해나갈 수 있겠는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연임 성공, 김용 총장의 세계은행 총재 선임, 그리고 문화적으로 한류 열풍이 세계에 충격을 주고 선도해 나가고 있는 것은 결코 의외의 일이 아니다.

이미 20-50클럽의 7번째 나라로 등극한 한국의 세계사적 위치가 말해주고 있듯이 지난 5,000년 역사의 시련과 발전의 국가적 에너지가 활화산처럼 폭발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역사적 대전환기를 맞아 우리가 어떻게 통찰하고, 앞으로 인류역사의 새천년을 밝혀나갈 희망과 신념의 햇불을 치켜들고 나갈 국민적 에너지

를 모으는 리더십의 발휘를 어떻게 해나가느냐가 중요하다. 여기에 우리 국민들이 선택해야 할 지도자의 애국심이 담긴 인류애와 국가적 사명이 담긴 세계사적 사명감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다.

대통령 선거는 정당들과 정치인들의 싸움터가 아니고, 전 국민이 참여하는 환희의 페스티벌이 돼야 한다. 2012년 한국의 대선이 5,000만이 참여하는 거국적인 잔치여야 할 이유가 바로 세 번째 밀레니엄 시대를 이끌어 갈 나라가 한국이어야 하고, 한국과 세계를 이끌어 갈 지도자를 뽑는 것이 바로 대선이기 때문이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많은 정치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을 꼽는다. 오바마 대통령도 백악관 집무실에 링컨 대통령의 조각상을 세워두고 그가 직면한 문제가 있을 때마다 가상 대화를 나눈다고 한다.

링컨 대통령은 그의 전기가 밝히듯이 실로 혹독한 시련과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대통령에 당선된 후 대선 경쟁자를 모두 정부 장관으로 발탁하고 국민들을 통합하는 리더십을 발휘한 지도자로 세계인의 화두가 되고 있다. 그렇게 링컨은 ‘보통 사람’ 링컨에서 ‘이상주의’ 링컨으로 시대가 원하는 모습으로 성장해 나갔다. 링컨은 현직 대통령으로 암살되기 직전까지 흥정과 타협으로 리더십을 키워 가면서 달인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한다.

너무 고결해서 세속적인 정치인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링컨의 ‘신화’는 그가 죽는 순간부터 시작됐다고 시드니 불루멘탈(빌 클린턴 대통령의 보좌관을 지냄)은 강조하고 있다. 그렇다. 생명은 영원한 것이다. 위대한 삶을 영위한 사람의 생명은 고통의 바다(苦海)인 삶을 접고 죽은 후에 새롭게 태어나게 된 것이다. 부활의 진리이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이라는 게티스버그에서 밝힌 링컨의 정치철학과 신념은 ‘기도’보다는 좀 더 세속적인 수단(흥정과 타협, 소통)을 선택했다. 링컨의 천국은 정치였고, 그의 지옥은 형이상학이었다는 링컨의 자서전을 쓴 윌리엄 헌턴의 말에 공감한다.

12.19 대선의 주인공이 누가 되느냐는 우리 국민의 선택에 달려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뽑힌 국가지도자가 누가 되든 그는 반드시 우리 한국이 가야 할 길, ‘세 번째 밀레니엄은 한국이 선도해야 한다’는 역사적 세계적 사명감과 함께 애국정신과 애국민의 정신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그렇다. 참사랑은 인간이 가진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다. 확실한 비전과 애국심이 가득한 사람이 이 시대를 이끌어갈 리더십의 핵심이다.

끝으로 18대 대통령을 뽑는 문제에 있어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 “사람을 다스리려면 자신을 그들 아래에 두어야 한다. 사람들을 인도하려면 그들을 따르는 법을 알아야 한다(노자의 말).” <좋은 사람 좋은 세상> 독자 여러분이 2012년 대선의 해를 위대한 희망의 해로 바꾸어 2013년 새해를 맞이하시길 기원한다. **장만기**

따뜻한 기술, 따뜻한 사회

“사람, 자연, 과학기술이 융합된 따뜻한 과학기술을 추구해 나가야 한다. 아직도 과학기술은 국민들의 마음을 감싸 줄 수 있는 과학기술이 아니다. 심한 경우, 과학기술은 과학자나 기술자 그리고 관료들의 전유물일 뿐, 자신들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자주 발견된다.”

2012년 8월 한국공학한림원(NAEK)이 정책 총서로 펴낸 <대한민국의 새로운 50년, 과학기술로 연다>는 따뜻한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고 있다.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차기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 총서에서 따뜻한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언급된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왜냐하면 2013년 체제의 시대정신으로 자리 잡은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 과학기술이 감당해야 할 역할이 중차대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이 한국 사회의 보편적 복지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과학기술의 수혜 측면에서 불평등 또는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맥락에서 지난 9월 ‘청색기술연구회’에서 발표한 정책 보고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3대 과학기술 패러다임>을 찬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보고서는 따뜻한 기술을 ‘인간의 얼굴을 한 기술’이라고 정의하고, 따뜻한 기술로 ‘차별과 장벽이 없는 사회, 미소 짓는 사회’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뜻한 기술의 수혜 대상으로는 △사회적 약자 △소외 계층 △희귀병 환자처럼 고통 받는 사람 △제3세계의 인류 △식량난과 물자난으로 고통 받는 북한 주민을 꼽았다. 이 보고서는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과학기술의 개발을 통해 고령자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으로써 과학기술의 사회적 역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을 맺는다.

하지만 따뜻한 기술은 아직 정책 연구 단계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따뜻한 기술에 대한 한국 사회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10월 초에 출간된 <따뜻한 기술>은 시의적절하고 주목을 받을 만하다고 평가되고 있다. 23명의 국내 전문가가 필진으로 참여한 이 책에는 따뜻한 기술의 기본 개념과 구체적인 사례가 망라되어 있다.

먼저 인문학자들이 기술의 본질에 대해 질문을 던진다. “기술은 지식을 활용하여 인간의 삶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또 풍요롭고 행복하게 하는 것인데 부의 축적을 위한 기술만이 기술개발의 궁극적인 목표인가.” [염재호 고려대 부총장·정치학 박사]

“기술은 존경, 겸손, 정의감, 사랑과 같은 인간적 정서와 미덕의 따뜻한 품으로 끌어안는 것이 중요하다. 인간성의 품에 안긴 기술에게 맨 처음 말을 거는 것은 아마도 책임일 것이다. 책임은 기술에게 요구한다. 기술로 인해 영향 받는 존재들을 고려하고 기술로 말미암아 벌어질 일들을 전체 맥락 속에서 이해하라고 말이다.” [이상헌 동국대 교양교육원 교수·철학 박사]

“따뜻한 기술의 목표는 단순히 복지의 실현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기술개발과 적용 그 모두가 사람 중심이 되는 지속 가능한 기술혁신을 통해 인간과 자연이 우선시되는 사회혁신을 이루고, 이를 토대로 미래형 지역 순환경제를 활성화시켜 고용과 소득 창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더 큰 목표가 있다. 이는 우리 사회가 3차 산업혁명, 자연 자본주의, 청색 경제 등으로 표현되는 미래 사회 패러다임에 가장 적은 비용으로 모두가 함께 들어설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기도 하다.” [임성진 전주대 사회과학대 학장·환경정치경제학 박사]

이 책을 기획한 나로서는 따뜻한 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한국 사회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소외계층의 복지가 향상되는 따뜻한 사회가 앞당겨 구현되기만을 바랄 따름이다. **김재민**

● 이인식 소장



1945년생으로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했다. 현재 지식융합연구소 소장이며, 과학문화연구소장,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 KAIST 겸직교수를 역임했다. 대한민국 과학 칼럼니스트 1호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등에 470편 이상의 고정 칼럼을, 월간조선, 과학동아, 한겨레21 등에 160편 이상의 기명 칼럼을 연재했으며, 2011년 일본 산업기술종합연구소의 월간지에 칼럼을 연재하기도 했다. 제1회 한국공학한림원 해동상, 제47회 한국출판문화상, 2008년 서울대 자랑스런 전자동문상을 수상했으며, <지식의 대융합>, <자연은 위대한 스승이다>, <이인식의 멋진 과학> 등 40여 종의 저서가 있다.

이제, **색** 시하게 붙여라

센스있는 당신을 위해 탄생한 색다른 라벨 -
포스트-잇® 다용도 스티커 라벨로 한발 더 앞서 가세요!



회사에서도 집에서든 센스있게 색깔별로 착착~
포스트-잇® 다용도 스티커 라벨



함께 자라고 함께 살아가는 꿈
농협이 함께 꾸는 꿈

